

기정사실화하여 보도하거나 추측성 기사를 지나치게 많이 보도하여 독자들에게 사실 규명의 필요성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여당 정치인이 관계되었다는 문서내용을 부각하여 정치공방으로 몰아가는 태도에서는 안기부 공작에 대한 비판을 조금이라도 분산시키거나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한편 이 사건을 빌미로 북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조장하는 신문도 있다. 북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한반도 남단에 발 딛고 서 있는 언론이라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문제부터 철저히 따져 보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예상한 일이긴 하지만 반복의식을 조장하는 신문들에게서 안기부의 공작정체에 대한 문제의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단호하면서도 자신있게(?) 북풍의 본질은 '북에 의한 공작'인 것처럼 분석하고 있다.

신문들의 이러한 논조는 현재 진행되는 대북 유화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새정부의 개혁작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중앙일보』 4월 2일자 문창극 논설위원의 [북풍, 이대로 덮고 갈건가]를 최악의 칼럼으로 선정했다.

이 칼럼은 제목만 보면 북풍공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막상 내용을 보면 북풍에 대한 진상규명은 간 데 없고 북한에 대한 적대감만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 논설위원은 칼럼 초반부에서 "어떻게 각 정파들이 적과 이런 식의 거래를 할 수 있는 가 ... 문제를 터뜨린 쪽도 정치권이고, 지금 와서 덮자고 하는 쪽도 그들이니 무엇이든 자기들 마음대로인가"라고 지적함으로써 이 사건의 본질이 마치 정치권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있는 것처럼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북풍사건의 핵심이 역대 집권여당과 안기부에 의한 야당 후보 음해 시나리오 오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더욱이 선거 때마다 강도 높게 불었던 북풍이 어느 편에 유리하고 불리했는가를 따져보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 따라서 양비론적 논조를 보이는 이 칼럼은 문제의 초점을 흐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의 주범을 옹호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칼럼 중후반에서는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문 논설위원은 "북한은 김대중 대통령을 떨어뜨리기 위해 북풍 공작을 벌인 당사자인데..."라는 전제하에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에 시종일관 탄지를 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 논설위원은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집권에만 눈이 어두운 우리 정당들을 갖고 논 셈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의 시각에서는 북풍 사건의 주범이 북한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대목이다.

급기야 이 칼럼은 "북한은 이를 이용해 우리를 분열케 한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단정한다. 이 대목에 이르면 안기부와 과거 집권여당의 책임은 아예 사라져 버렸다고 할 수 있다. 단지 '남한을 이용한' 북한만이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문 논설위원은 아직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신중치 못한 자세를 보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문 논설위원은 이 칼럼에서 "그렇다면 해괴한 북풍사건으로 안기부 등 국가정보기관이 입은 손실과 정치권 전체를 불신하게 된 국민들의 상처는 누가 보상하겠는가"라고 묻는다. 결국 안기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괜스레 북풍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안기부도 일종의 피해자라는 논리다. 이때 '국민의 상처'운운하는 것도 사실 다수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안기부를 옹호하려 했다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결론에서 문 논설위원은 "북이 변하지 않는 한 남북대화는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다...지금 우리는 경제위기 극복이 급선무다. 북한 문제는 그 다음에 풀어도 늦지 않는다"라고 맺고 있다. 이 대목에 대해 이 칼럼이 남북의 유화국면을 '방해'하기 위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북풍'은 이를 위한 소재일 뿐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 칼럼 중반에 "정치적으로 서로 떠벌릴 것이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 공정한 기구를 만들어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일면 설득력 있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정작 북풍에 대해 '떠벌리는' 주체가 바로 언론임을 우리는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 따라서 간혹 드러나는 이와같은 구절은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98년 6월호 '말'지
조선일보 5월 3일자
[망국적인 폭력시위]

공권력의 폭력은 정당한가

지난 5월 1일 열린 노동절 기념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현실적인 실업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개혁에 나서지 않는 재벌들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날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에 대해 각 언론 매체들은 집회의 내용과 참석자들의 주장은 외면한 채 집회 이후 발생한 시위에 초점을 두고 '불법성'과 '폭력성'만을 부각시켜 보도했다.

특히 시위의 '폭력성'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강조한 것은 기존 노사관계에 대한 불공정 보도 관행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 주었다. 시위가 폭력적인 양상으로 변화된 계기나 배경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시위대의

'폭력'은 질타하면서 공권력의 '폭력'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 등 균형을 상실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노동자 및 학생들에 대한 감정적인 적대감을 야기하고, 경제위기의 책임을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갈 우려가 높다.

민주노총이 주도한 노동절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가장 극단적인 비난을 퍼부은 신문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이다. 그 중에서도 조선일보 사설 『망국적인 폭력시위』는 일방적 매도와 비난에 있어 단연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신문분과는 이 달의 최악사설로 조선일보 5월 3일자 『망국적인 폭력시위』를 선정했다. 중앙일보의 『폭력시위 단호히 대처해야』라는 사설도 왜곡된 주장을 펼친 사설로 지목되었으나 논리적 비약의 정도가 조선일보에는 이르지 못해 '최악사설'에는 선정되지 못하는 행운을 누렸다.

조선일보는 이 사설을 통해 '폭력시위'라는 말도 모자라 '망국'이라는 극단적 용어를 사용, 이날 노동자들의 시위가 국가를 망하게 할 것이라는 무리한 주장을 폈다. 뿐만 아니라 "그 폭력시위가 특히 우려되는 것은 한총련의 개입 때문이어서 그렇다"라며 단정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한총련 개입'까지 운운하는 것은 이날 시위의 과격함을 더욱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 동안 우리 신문들이 각종 왜곡·편파보도를 통해 한총련의 이미지를 '과격'과 '폭력'으로 상징화 시켰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제 그 이미지를 노동자들에게 덧씌우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 공권력의 강경 대응과 검거위주의 진압방식이 폭력 사태를 불러 일으킨 한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었으나 이는 주목받지 못했다.

한편 이 사설의 또 다른 문제는 자신들의 주장을 '국민'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역행하고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폭력시위는 단연코 국민의 이름으로 배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시위에 참여한 다수의 노동자와 실직자는 '국민'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기득권층의 이해를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항상 '국민' 전체의 이름을 내세우는 조선일보의 좀 더 솔직한 태도를 기대한다.

이 사설은 논리적 허점도 드러내었다. "IMF와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 그 약속이 국민의 고통분담을 전제로 한 금융개혁, 기업 구조조정, 노동조건의 유연성 등이라는 것이 노사정 타협의 기본 인식이다. 그런데 정부가 그런 약속들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폭력시위로 번지고 있으니 걱정이 앞선다"라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이미 지난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하고 법제화 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치를 양보했다. 그러나 재벌개혁등 다른 부분의 개혁은 아직도 실천되고 있지 않아 노동계의 반발은 이미 예상되었던 바다. 따라서 정부와 재벌이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도록 촉구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정부와 재벌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을 '폭력시위'라는 한 측면으로만 비판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과는 거리가 멀다 하겠다.

"지난 10여년간 민주화 바람을 타고 일부 강성 근로자들은 폭력적 불법시위를 남

발해 우리 경제수준에 어울리지 않는 고비용-저효율 상태를 만들어 놓았고, 이 때문에 국제경쟁력을 잃은 많은 기업들이 쓰러지거나 외국으로 나가버렸던 것이다"라는 주장 역시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비약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낳은 원인은 수없이 많다. 그런데, '폭력적 불법시위'만을 원인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일방적인 횡포와 매도라고 하겠다. 또한 이 사설의 주장처럼 노동운동 때문에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상실했다면 노동운동이 없으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인가. 우리보다 경쟁력이 높은 외국 기업들도 모두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받고 있고, 또 노동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노동운동이 국제경쟁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여론을 왜곡시키는 조선일보의 주장일 뿐이다.

지난 노동절의 폭력시위가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주장 역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이어서 검증된 바 없다. 애초 합법 집회로 평화시위를 하려했으나 공권력의 과잉대응이 폭력을 불러왔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시위'와 '파업'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의사표현의 한 방법임에도 이를 일탈행위로 간주, 정작 '폭력'과 '불법'을 조장하는 것은 언론의 일방적 매도와 왜곡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98년 7월호 '말'지
서울신문 5월 27일자
[경제희생 막는 파업]

'서울신문'은 관제언론의 틀에서 벗어나야

정권교체 이후 서울신문의 위상과 방향에 대한 논란이 많다. 정부 행정 홍보라는 역할로 태어난 서울신문이 그동안 나름대로 위상 변신을 시도해왔는데, 새정부 들어서서 어떠한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경영진 임명 이후 서울신문이 어떻게 변신할 것인가가 주목받고 있다.

서울신문이 관제의 틀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먼저 중립의 시각과 공정의 시각에서 여론을 조성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 처지를 대변하거나 옹호하는 주장을 펼치거나, 보수 기득권 세력의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주장을 계속 펼친다면 서울신문은 기존의 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독자들로부터 계속 외면받는

신문이 될 것이다.

민언연 신문분과는 이달의 최악사실로 서울신문 5월 27일자 「경제희생 막는 파업」을 선정했다. 이미 지난 달에도 노동자들의 파업을 다룬 조선일보의 「망국적인 폭력시위」를 최악사실로 선정한 바 있지만, 지금의 '경제위기'와 그에 대한 극복 노력에서 정리해고 등 노동자들의 희생만이 강요당하고 있고, 또한 노동자들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주장을 반복하는 신문 사실은 계속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계는 많은 양보를 하였으며, 그 결과 노동환경은 더욱 악화되었다. 반면에 재벌개혁 등 노동계 요구사항은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다. 그에 따라 민주노총은 제2기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앞두고 파업 등 다소 강력한 입장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식의 전제를 달면서도 노동계보다는 정부와 경영자들의 논리만을 대변하고 있다. 나아가 민주노총의 파업 등 집단행동을 무조건 '불법', '폭력'으로 매도하면서 경제위기의 책임까지 떠넘기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실이 바로 서울신문 5월 27일자 「경제희생 막는 파업」이다. 이 사실은 편파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신문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시종일관 정부당국의 입장을 대변, 옹호하고 있어 더욱 비판을 받았다. 물론 정부의 조치가 적절하고 민주노총의 파업이 명분이 없다면 편파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재벌의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고 있으며, 또한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노동계의 요구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노동자들의 고통 전담만이 강요받는 상황에서 파업 선언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 사실은 초반부에서 "검찰에서...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아 파업강행시 공권력을 즉각 투입, 민주노총 지도부와 산하 노조간부들 전원 사법처리키로 한 것은 불가피한 사법적 대응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이처럼 파업에 대하여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사법처리'라는 정부의 강경대응을 '불가피한' 것이라고 단정했다. 파업이 대외 신인도 하락을 갖고 오는 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파업의 파장, 기능과 역기능, 각 이해집단의 대응에 대한 분석 등 중립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하지만 언론은 무조건 흑백논리로만 대응할 뿐이다.

또한 "당국이 ... 강경방침과 설득작업을 병행키로 한 것은 노·사·정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거나 "당국이 민주노총파업에 개입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행위일뿐 아니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심대하다는 데 있다"는 내용은 '노·사·정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와 '불법행위로 국민경제 악화시키는 노동계'를 대비시키면서 정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사실 후반부에는 민주노총 파업의 부정적인 여파를 근거없이 마구 나열하였다. 예를 들면 "민주노총이 이러한 정리해고를 반대, 파업에 들어간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정리해고는 구조조정이 한 부분일 뿐인데도,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것이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논리는 기업에서 자행되고 있는 부당해고도 기업 구조조정이란 명분이라면 얼마든지 용인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밖에도 "민주노총이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하자 주가가 11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에 즉각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로자가 파업을 하는 나라에 어느 외국인이 투자를 하겠는가", "우리 근로자들이 파업을 앉겠다고 선언해야 할 시점에서 파업을 한다는 것은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가자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등의 주장에서는 파업의 배경에 대한 설명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현재 진행되는 불균형한 구조조정에 대한 비판이 없음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이 사실은 "기업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는 대신 불법파업은 철저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의 파업이 기업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아니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사실이 말하는 대로 노동자들의 강력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파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민주노총의 파업을 무조건 불법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모순이다.

지금까지 어느 언론도 민주노총의 파업이 불법인 이유에 대해 명백한 근거를 설명하지 않았다. 더불어 '기업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언론은 노동자들의 파업 권리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98년 8월호 '말'지
조선일보 6월 20일자
[통일축전'論]

조선일보의 일편단심, 남북의 긴장유지

조선일보는 과연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가? 6월 20일자 <통일축전'론>이라는 사실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다.

현재 새 정부는 잠수함 사건과 같은 돌발변수에도 흔들림없이 '대북햇볕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8.15통일축전 제안과 금강산관광을 통한 남북경협 등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러한 관계 변화가 달갑지 않은 모양이다.

특히 지난 6월15일 북한의 제의로 우리 정부가 수용기로 결정한 '8.15 통일축전'에 대한 조선일보의 노골적인 거부감은 다시 한번 극우언론의 실체를 확인케한다.

조선일보는 이 사실 첫 머리에 "정부의 대북정책이 여러가지를 너무 한꺼번에 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라며 정부의 통일축전 수용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한걸음씩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할 남·북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정작 '너무 한꺼번에 하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 자신이다. 그들은 과거에 매달리면서 한반도 상황이 통일축전을 받아들이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북한과 우리 정부의 변화를 인정치 않으려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일 뿐이다.

이번 축전제의를 통해 북한은 이전과 분명히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국가보안법 폐지, 안기부 해체, 주한미군철수 등 정치적 전제조건을 달지 않은 점만 봐도 그렇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북의 이 같은 '양보'를 화해의 계기로 삼기는커녕 "이것만으로는 지금까지 역대정부가 그것을 거부해온 정책을 바꿀 충분조건이 되기엔 미흡하다"며 제동을 하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조선일보의 이러한 태도가 북한의 발빠른 변화를 촉구하는 선의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조금씩 풀려 가는 남북한의 얽힌 실타래를 다시 엉키게 만들려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통일축전을 계기로 남북한 관계가 바람직하게 변해야 한다는 주장은 하지 않은 채 '과거의 경험'을 빌미로 북한의 제의에 숨겨진 정략이 있다는 것을 애써 부각시키려는 논조에서 두드러진다.

북한이 정치적 조건을 달지 않은 점에 대해선 "전제조건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북은 언제든지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자의적 판단을 하고 있다. 행사내용이 예술축전인 것에 대해서도 "표면적으로는 정치냄새가 없는 것 같지만 북한이 지금까지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던 범민련 행사도 겉으로는 정치냄새를 노골적으로 피우지 않았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하여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다. 결국 이러한 우려아닌 우려는 이번 통일축전을 과거 범민족대회와 연관시켜 저지하려는 '트집잡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 사실에서는 새 정부의 통일정책방향이 과거 군사정권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길 바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북한의 달라진 태도를 들어 통일축전 제의를 수용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역대정부가 그것을 거부해온 정책을 바꿀 충분조건이 되기엔 미흡하다"고 일축한 점이 그렇다. 이는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면서도 정작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방향이 과거정권과 다름없이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만한 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이다.

결국 조선일보의 우려 섞인 주장은 "정부가 취하고 있는 유화정책에 대해 북한이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뿐"이며 "북한의 태도가 달라진 점이 하나도 없는 데... 정부의 이번 조치가 너무 앞서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북한이 국가보안법 폐지, 안기부 해체, 주한미군철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은 커다란 '양보'이다. 따라서 위의 주장은 '정치적 전제조건 없는 통일축전 제의'의 의미를 애써 외면

한 것에 불과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조선일보는 "정주영씨 방북과정에서 북한이 보인 태도"를 근거로 북한이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또한 행사 개최를 전제로 조선일보가 제시한 조건에서도 변함없는 극우적 태도가 드러났다. "우리 사회를 균형 있게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도해야 하며, 행사계획도 북측의 국가보안법 무력화 공작과 선전선동 계략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렇다.

이러한 주장은 지금까지 남북통일운동에 앞장서온 진보단체들을 배제하고 그들이 이른바 '균형잡힌 보수세력'으로 규정한 관변단체 등을 앞세우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뿐만 아니라 남북 민간단체간의 평화적 행사를 계획하면서까지 경계의 눈초리를 늦추지 말 것을 주장하는 것은 행사자체의 성립을 원치않는 태도로 비판받고 있다. 결국 극우언론 조선일보는 한반도의 변함없는 긴장상황 속에서 기득권을 유지해 보겠다는 반민족적 발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98년 9월호 '말'지

중앙일보 7월 31일자

[스크린쿼터제 언제까지]

스크린 쿼터제 폐지가 한국 영화 질적 성장 보장한다(?)

지난 7월 21일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통상협정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시작하면서 '국산영화에 대한 지원책을 좀더 확충하고 스크린쿼터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스크린쿼터제 폐지론을 주장하였다. 이 발언은 곧 스크린쿼터제가 한국영화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중론을 무시한 것으로 비판받았다. 대부분의 언론도 이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중앙일보만 7월 30일자 사설 <스크린쿼터제 언제까지>를 통해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회의론을 제기,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민언련 신문모니터분과는 이 사실을 '이달의 최악사실' 선정하였다. 선정 이유는 이 사실에서 한국영화현실에 대한 인식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실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인지 이 사실은 같은 주장을 필요 이상으로 반복하면서도 그 근거는 매우 피상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사실은 스크린 쿼터제가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시종일관 '합

리적 대안'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 사실에서 주장하는 바가 비합리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일례로 "스크린쿼터제로 10년째 보호를 했지만 얼마나 발전했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영화의 현실"이라며 현실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영화가 보호받아왔기 보다는 정부의 검열 속에서 가위질을 당하는 등 각종 규제의 대상이었다는 점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또한 스크린쿼터제는 최소한의 보호정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치 스크린쿼터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한국영화가 발전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사실은 이분법으로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을 비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애국심 일변도의 감정적 호소" vs "합리적이고 냉철한 대응책"」, 「"흥분하고 반대만 하기" vs "합리적 대안제시"」 등이 그렇다. 이 이분법에서는 스크린쿼터제 유지 주장을 '감정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폐지 반대 입장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 매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스크린쿼터제 폐지론을 냉철하고 합리적인 대안인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스크린쿼터제 유지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한국영화 산업의 현실에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주장이다. 실제로 사전검열이 폐지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한국영화가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겨우 조성되었다는 영화인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질적 성장 없이 보호막만 요구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한국 영화가 질적으로 성장했다는 여론을 외면한 주장으로 비판을 면키 어렵다. 한국영화는 제작편수는 줄었지만 시장점유율이 93년 16%에서 25.2%로 상승했으며 저예산 영화들이 작품성을 인정받고 흥행에 성공하는 등 질적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은 스크린쿼터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마치 질적 성장을 고려치 않은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한 "언제까지 보호막 속에서 키울 것이냐는 강한 반발도 있다"는 대목은 "스크린쿼터 일수를 줄여주면 한국에 5억달러 규모로 극장쪽에 투자를 하겠다"는 미국영화협회 윌리엄 베이커 회장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제가 폐지된 채 멀티플렉스가 생기면 외화만이 상영될 우려가 있고, 직배사의 압력과 극장의 이해가 맞물려 흥행성 있는 한국영화조차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강제적인 보호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사실에서 꾸준히 강조하는 것은 '대안'이다. 이 사실은 영화인들에게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식의 결의와 다짐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보호육성을 하되 언제까지 시한을 달라"는 구체적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영화인들의 입장은 이미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다. 즉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40%에 이를 때까지 스크린쿼터제를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이를 모를리 없는 중앙일보가 '스크린쿼터제 언제까지'라는 다소 회의적인 제목으로 시한을 밝히라고 강요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경쟁력 운운하며 영화의 산업적 측면만 부각하는 중앙일보의 보도태도는 예술, 문화로서의 영화의 특성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이 사실은 결국 영화에 대한 투자를 적잖게 했던 재벌언론의 면모를 보여주었다는 지적이다.

98년 11월호 '말'지
세계일보 9월 16일자
[경찰 총기사용 정당]

시민안전 외면한 채 총기사용 부추겨

최근 경찰관의 총기사용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9월 13일에는 서울대병원에서 차량질도 혐의자가 도주하다 자해소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실탄을 맞았다. 14일에는 충남 당진에서 10대 절도용의자가 총에 맞아 숨졌다. 이밖에도 25일 대구 계명대에서는 수배학생을 검거한다는 이유로 교내에서 가스총을 사용하여 시민들의 반발을 일으켰다.

경찰청 분석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찰의 총기사용은 23.5% 증가했다. 또한 8월 한달동안 51건의 총발사가 있었고 7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처럼 총기사용이 남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총기사용은 상대방의 무기소지 여부 등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언론 역시 총기사용 논쟁을 지면에 담거나 시민단체의 지적, 그리고 <총 마구 쏘는 경찰>, <경찰 총기 사용 절도있게>, <비살상용 총기대체> 등 총기남용을 꼬집는 사실까지 실고 있다.

그러나 유독 세계일보만이 총기사용이 정당하다며 공권력을 옹호하고 나섰다. 이 신문은 9월 16일자 사실 <경찰 총기사용 정당>이라는 다소 '섬뜩한' 제목의 사실을 통해 강력한 공권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 사실은 초반부에 "경찰관이 엿그제 절도 용의자 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한 것은 범법자들이 갈수록 흉포화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불가피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사실이 말한 '엿그제 사건'은 바로 9월 14일 충남 당진에서 공장 자재를 훔치다 달아난 10대 절도범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절도 용의자 신규철군은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둡고 안개가 많이 끼어 총기사용이 위험했다고 한다. 이는 "어둡고 안개가 많이 끼어 잘못 맞았다"는 순경의 말에서도 밝혀졌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총기사용이 불가피 하다는 것은 당시 정황을

무시한 주장이다. 게다가 이 사실은 "범법자들이 갈수록 흉포화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라는 문구를 덧붙여 마치 이 사건이 흉포한 범법자에 의한 사건인 것처럼 왜곡, 당시 총기사용을 정당화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 범죄자를 제압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면서도 "영화속에서나 가능할까 현실에선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 말은 결국 총기를 사용해야만 범죄자를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총기에 의존하지 않고도 범죄자 제압은 얼마든지 가능했다. 따라서 위의 주장은 총기사용을 정당화하는 데 급급하여 현실을 무시한 극단적인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우리처럼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나라는 드물다"라는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부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여론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를 일반화하기는 무리라는 것이다. 오히려 공권력 스스로가 불의한 독재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 더군다나 총기를 사용하지 않아서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닌 이상 이를 이유로 총기사용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범인이거나 불법시위 진압 과정에서 흉기나 화염병에 다치는 것은 예사이고..."라는 부분도 사실을 왜곡하기는 마찬가지다. 실제로 시위과정에서 시위참가자와 일반시민들이 다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공권력 남용으로 목숨을 잃은 사례도 수없이 많다.)

현재 총기사용은 "정당방위에 해당할 때" 등 엄격히 제한되어있다. 그러나 세계일보의 이것도 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이유를 "정작 흉악범과 맞닥뜨린 상황에서 상대의 범죄협약의 형량, 소지한 무기까지 헤아린 뒤 총을 뽑아 하반신을 명중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총기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매우 위험한 주장이다. 아무리 흉악범이더라도 반드시 무기를 소지한 것은 아니다. 또한 단순 범죄자가 무기를 소지한 경우는 극히 드물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총기사용으로 자극할 필요도 없다. 게다가 범죄자 주변에 있는 일반시민들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기 쉽다. 그렇다면 정당방위, 안전수칙을 무시한 총기사용은 사망을 불러올 수도 있다. 안전수칙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총기사용이 사망을 불러온 사례는 적지 않다. 최근의 충남 당진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다.

물론 이 사실은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따른 불상사는 최소화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불상사'는 결과이며 세계일보의 주장대로 총기를 사용한다면 불상사는 불보듯 뻔한 이치다. 따라서 '불상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기사용을 자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해야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한편 "범법자는 물론 누구라도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저항할 때엔 총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일반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범법자는 물론 누구라도'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지 말아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심지어 총격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물리적 폭력보다 무서운 언어폭력에 가깝다. "경찰의 단속

과 명령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일단 그에 따르고 응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그런 뒤에 문제를 삼아도 늦지 않다"고 하지만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세계일보의 불합리한 주장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경찰검문에 불응하거나 도주 또한 저항하는 피의자에 대해선 이유와 정황을 불문하고 총격을 가하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를 우리사회에도 도입할 만하다"는 내용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도대체 세계일보는 총기소지가 자유로운 미국과 그렇지 않은 한국사회의 차이를 모르고 있던 말인가.

이 사실은 인권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았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총기사용은 그것이 정당하든 그렇지 않든 공권력의 폭력이다. 따라서 범죄자의 인권이나 일반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은 외면한 채 사실까지 동원하여 총기사용을 옹호하고 나서는 것은 다수 국민의 무시한 처사다. 인권의식이 결여된 세계일보 논설위원실이 과연 언론의 정도를 걷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98년 12월호 '말'지
조선일보 10월 26일자
[최장집 건국사관 규명해야]

조선일보가 '언론의 자유'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누가 뭐래도 사상의 자유다. 따라서 인간의 사고방식을 제약하는 세력이나 집단은 자유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보면 최근 월간조선 11월호로 시작된 조선일보사 발행매체의 최장집 교수 관련 보도는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 자유민주주의에 명백히 배치된다고 볼 수 있다.

첫 보도인 월간조선의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기사에서는 '역사적 결단'이라는 제목부터가 대표적인 왜곡사례로 지적받았다. 즉 논문 속에서 '오판'이라는 말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이라는 말이 굳이 긍정적 의미라고 주장하며 논문 내용을 왜곡한 것이다. 이러한 왜곡기사를 토대로 쓰는 후속기사들은 아집에 가까울 정도다.

후속기사 중 의견기사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부필자 칼럼이나 독자투고 역시 조선

일보의 왜곡된 보도를 기정사실화하여 주장을 펴고 있다. 이 점만 보아도 왜곡기사가 여론을 얼마나 호도할 수 있는지 그 위험성을 알 수 있다. [최장집 건국사 규명해야](10월 26일자)라는 사실도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민언련 신문모니터분과는 이 사실을 '이 달의 최악사실'로 충분하다고 판단, 선정하였다.

이 사실은 '수정주의 사관'에 대한 장황한 설명과 비판으로 시작하였다. 수정주의 사관에 대한 조선일보의 해석은 "분단의 책임도 미국과 남쪽 우익에만 있으며 북쪽은 민족통일 세력이고 남쪽은 반민족적 분단세력이라고 규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정주의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정당성과 존재 이유를 근원적으로 부정"한다고 해석하였다.

수정주의 사관에 대한 이 사실의 해석을 알기말부할 생각은 없다. 문제는 수정주의 사관에 대한 비판적 해석이 최 교수 논문에 대한 비판으로 교묘하게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물론 "최장집 씨가 딱히 그런 수정주의자인지의 여부를 우리가 여기서 단정할 생각은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은 최 교수를 수정주의자로 판단하는 게 아니냐는 의

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결정적으로 "최장집 씨의 용어사용, 개념규정에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는 현저히 배치되는 사례가 있음을 발견한다"는 부분이 그러하다. 조선일보는 그 근거로 "6·25를 민족해방전쟁으로 규정한 것부터가 그러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은 '역사적 결단'과 더불어 대표적인 왜곡사례로 비판받았다. 최 교수는 논문에서 "첫 번째 시기에서의 전쟁은 전쟁을 유발한 북한 지도부가 기본적으로 믿었던 바의 민족해방전쟁'이었던..."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는 누가 보아도 북한측에서 '민족해방전쟁'으로 규정했다는 것을 인용한 것이지 최 교수가 그렇게 규정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수정주의와 유사한 시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대학 연구자로만 남아 있는 한에는 월간조선이 그토록 정면의 논쟁을 일으키지는 않았으리라 본다"며 "그는 다름아닌 대통령 정책기획위원장이며..."라고 '사상검증' 사유를 밝혔다. 이 주장은 모순을 안고 있다. 조선일보가 문제삼는 최 교수의 논문은 그가 대학연구자로만 남아 있을 때 작성한 것이다. 최 교수가 공직에 등용되었다고 해서 논문을 수정해야 된다는 주장이 아닌 바에야 그를 공직자로 등용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논리적으로는 오히려 타당하다. 그러나 월간조선은 "북한의 남침을 [민족해방전쟁]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인했던 공산세력의 움직임을 민중항쟁으로 보는 그의 시각은 김대중대통령의 역사관과도 정면 배치된다"고 하여 최 교수와 김대통령을 차별화하였다. 따라서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공인 사상검증의 자유는 93년 한완상 부총리에 이른 '진보적 공직인사 죽이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결론이다. 무엇보다도 조선일보 주장대로라면 현재 정부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에 대해 조선일보가 평가해

야 된다는 말이 되는데 이 주장에 누가 동의할 지 의구심이 든다.

"학문의 자유가 있으면 언론의 자유도 똑같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 말은 학문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공존한다는 뜻인데 현재 조선일보가 논문을 왜곡하면서까지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책임을 방기한 방종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어떠한 언론사도 '사실로부터 자유'를 누리면서 기사를 작성할 권리는 없다는 점을 조선일보는 각인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최근 부쩍 언론자유를 부르짖는 것은 계속되는 여론의 비판에 그럴듯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 논쟁은 조선일보가 시작한 것이다. 여론의 비판은 조선일보(월간조선 포함) 보도에 대한 후속적인 평가이자 비판이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상검증으로 따지자면 남북화해의 길을 모색하는 현 시국에서 냉전의식을 조장하는 조선일보야말로 사상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할 때다.

한겨레문화센터와 함께하는 기사쓰기 전문 워크샵

■ 언론인 실무학교 ■

- ▲ 각 강좌별 기사작성 실습
- ▲ 각 과제를 교정·교열
- ▲ 대판신문, 타블로이드판신문 각 1회 제작실습

강좌	강의주제	강사
[1회]	<특강> '기자정신'에 대하여	임재경(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언론인)
[2회]	신문제작구조의 이해 (기사가치 판단력)	손석춘(한겨레신문 문화부 차장)
[3회]	기사작성실습① (스트레이트 기사) 대판 신문제작실습① (1차 기획회의)	최민희(민언련 교육홍보국장, 전 월간 말 기자)
[4회]	기사작성실습② (스트레이트 기사)	최민희(민언련 교육홍보국장, 전 월간 말 기자)
[5회]	현장취재의 이해① <월간지> 대판 신문제작실습② (2차 기획회의, 기사분류)	정지환(월간 말 기자)
[6회]	우리 말·글 바로쓰기	김효곤(교사, 전 우리교육 기자)
[7회]	기사작성실습③ (해설기사 바로쓰기) 대판 신문제작실습③ (기사마감 및 면배치)	최민희(민언련 교육홍보국장, 전 월간 말 기자)
[8회]	기사작성실습④ (해설기사 바로쓰기)	최민희(민언련 교육홍보국장, 전 월간 말 기자)
[9회]	취재실습(1) (인터뷰란?) 대판 신문제작실습④ (교정·교열 및 편집·레이아웃)	정광섭(한겨레신문 기자)
[10회]	'특집기사'와 르포(1) (특집기사·기획기사)	오연호(월간 말 취재부장)
[11회]	취재실습(2) (인터뷰 기사쓰기) 대판 신문제작실습⑤ (교정지 마감)	정광섭(한겨레신문 기자)
[12회]	현장취재의 이해② <방송> 대판 신문제작실습⑥ (제작신문 평가)	정길화(MBC PD, 프로듀서연합회 회장)
[13회]	<특강> 논설과 칼럼 바로쓰기	성한표(한겨레신문 총괄상무)
[14회]	타블로이드판 신문제작실습 ■	기획회의① (매체특징·주제잡기)
[15회]	취재실습(3) (인터뷰 기사쓰기)	정광섭(한겨레신문 기자)
[16회]	'특집기사'와 르포(2) (특집기사·기획기사)	오연호 (월간말 취재부장)
[17회]	타블로이드판 신문제작실습 ■	기획회의② (취재마감 및 사진·기사분류)
[18회]	타블로이드판 신문제작실습 ■	편집회의① (2차 취재마감 및 편집·레이아웃)
[19회]	편집의 철학과 방법론	차성진(한겨레신문 종합편집부장)
[20회]	타블로이드판 신문제작실습 ■	편집회의② (교정·교열 및 교정지 1차 마무리)
[21회]	타블로이드판 신문제작실습 ■	마감회의 (교정지 최종 마무리)
[22회]	<특강> 지역언론과 민주주의	장호순(순천향대 신방과 교수)
[23회]	제작신문 평가 및 수료식	성유보(민언련 이사장)

- 일정 : 3개월 과정, 매주 수요일(오후 7시~9시), 토요일 (오후 4시~6시)
- 수강료 : 400,000원 (카드결제 가능)
- 신청 : 한겨레문화센터(3272-7575), 민언련 사무처(714-4562)



I

6·4 지자체선거보도 감시모니터



1998년 6월 27일 실시한 지방자치제 선거는 지방자치제도라는 민주적 체도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더군다나 정권교체로 민주주의에 한 발짝 다가선 이후라 그 의미가 더욱 컸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방송보도는 구태의연한 보도행태를 답습했다. 지자체 선거임에도 중앙정치 대결구도를 못 벗어났고 지역할거주의식 여론조사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또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한 방송의 모습도 엿볼 수 있었다. 대통령 동정보도가 과다했던 점과 여야 편파보도가 이를 잘 말해준다. 재미있는 것은 정권교체 이후 신문은 자기색깔을 내는 반면 방송은 누가 대통령이라도 상관없다는 식, 편들고 보자는 식이다. 97년 대선 당시 사상검증 토론회를 생중계 하던 것을 떠올리면 발빠른 변신이기도 하고 현재 여야의 성격을 고려하면 일면 개혁적 모습이기도 하다.

이제 총선을 1년 남짓 남겨두고 있다. 16대 총선 보도는 좀 달라질지 희망을 그래도 희망을 가져본다.

<선거보도량의 부족>

중앙정치 대결구도 못 벗어난 보도

98년5월11일~5월17일

KBS 9시뉴스, MBC 뉴스데스크, SBS 8시 뉴스
방송모니터분과

이번 6.4 지방선거는 지난 4년간 시행돼 온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반성하여 보다 나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킨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모든 선거가 그렇지만 특히 지방선거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중요하며 이들이 어떤 인물을 선출하느냐에 따라 그 지역의 발전 여부가 가름된다. 따라서 방송은 유권자에게 지자체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선거문화 풍토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한다.

그러나 지자체 선거를 20여일 앞둔 지난주간 방송 3사의 지자체 선거관련 보도는 이 같은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선거보도량의 부족

우선 양적인 면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보도량의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지자체 선거의 비슷한 시기, 관련 보도가 하

루평균 3-4개였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2건에 그치고 있으며 MBC와 SBS의 경우 하루 한 건도 다루지 않는 날도 있었다.

< 표-1 >

전체 보도량 대 선거관련 보도량 총합 비교 (괄호는 100분률)

방송사	전체폭지/ 선거보도 폭지	하루 평균 선거보도 폭지수
KBS	191 / 14 (7.3%)	2
MBC	196 / 14 (7.1%)	2
SBS	181 / 7 (3.9%)	1

그러나 관련 보도가 대부분 후보들의 단순 동정 중심이라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KBS가 기획한 <후보에게 듣는다> 정도가 단체장 후보의 정책 방향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는 평가다. 이 기획은 각 후보의 실업대책, 환란책임, 공직 철학 등을 들어보지만 원론적인 답변 이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 각 후보의 지역문제 현안 해결능력, 정책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역발전 공약 등이 미흡해 후보에게 홍보와 변명의 기회만 주고 정작 유권자들에게는 큰 도움

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후보의 경우 미화시키기에 급급했다는 평과 함께 마치 각 후보의 개인 홍보 물이라는 인상을 심어 주었다.

각 후보의 자질 검증이 자칫 편파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방송사들이 인물 검증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최소한 후보 검증의 기준이라도 제시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인물보도가 '후보 홍보'라는 비판을 면할 것이다.

중앙정치 대결구도 못 벗어난 보도 내용

지자체의 의미가 상실된 중앙정치 중심의 보도 태도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여야 모두 서울과 지방에서 후보추대대회와 필승결의 대회를 열었으나 각 지역의 후보로 선출된 후보자의 모습은 제대로 소개된 경우가 없으며 아예 관심 밖으로 밀려난 인상을 주었다. 한나라당 경북, 포항 필승 결의 대회 보도의 경우 후보자의 이름도 소개되지 않고, 중앙당의 주요인물의 모습과 육성만 인용하고 있다.

이는 정치권은 물론이고 방송도 지자체 선거를 중앙 대결 양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각 선거 지역별로 당면한 문제와 지역 주민들의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난 1기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 지방자치의 의미와 각 후보에 관한 검증보도는 거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홍미위주의 보도

한편 선거 때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경마식 보도, 전쟁용어 사용은 이번 지자체선거보도에서도 예외 없이 등장했다. 이는 유권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으나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홍미위주의 내용이 대부분이라는데 문제가 있

다.

5월 16일 MBC의 <서로각아 내리기>보도를 보면 각 당들의 상호 비방 광고를 뉴스거리로 삼으면서 "상대방 끌어내리기에만 치중하는 여야 각 당의 공통된 모습은 저급한 정치문화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원칙적인 양비론으로 결론을 맺었다.

또한 17일 <막오르는 TV대결>에서는 "내일부터 합동 토론회가 열립니다...여기에 쟁쟁한 참모진의 머리 싸움도 불만합니다....참모진을 상대로한 사무실의 가상대결이 불꽃 튀입니다.... MBC앵커였던 정동영의원과 SBS 앵커였던 맹행규의원 이 상대역입니다..... 아나운서 출신이던 오미영씨와 한나라당의 김영선의원 두 홍일점의 맞대결도 만만치 않습니다." 라고 보도했다. 이는 TV토론의 충실한 내용과 이를 뒷받침할 형식 등 본질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은 채, 유권자들의 흥미 끌기에만 급급한 보도였다.

SBS도 11일 긴급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 전형적인 홍미유발 보도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조사는 10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김대통령의 정계개편 발언이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이를 특종처럼 보도, 유권자의 흥미를 자극했다. 이런 보도 형태들은 유권자들의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한다는 명분으로 각 정당의 홍보전략을 여과 없이 방송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할거주의적 여론조사 분석

MBC와 SBS는 각각 14, 17일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했다.

SBS의 경우 17일 보도에서 여권 후보인 고건 후보와 임창열 후보의 출마에 대해 "위기극복을 위해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의견이 61.3%로 신의를 저버린 행동으로 문제된다는 응답 32.5%보다 훨씬

많게 나타났습니다”, “임후보가 새 정부의 후보로 나선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신의를 저버린 행동이라고 답한 사람보다 위기극복을 위해 정파를 초월해 공천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현재 정치권의 쟁점이 되고 있는 두 후보의 과거에 대해 여권에 유리한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SBS는 11일 지자체 선거보도에 바로 다음 쪽지에서 필리핀의 대통령 선거관련 보도를 한 바 있다. 이 보도는 <정권교체 유력>이라는 제목으로 “민주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사의 도도한 흐름이라는 사실이 필리핀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라는 등 우리나라의 정권교체와 연관지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위에서 지적한 대로 이날 실시한 ‘정계개편 여론조사’ 역시 김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의 발언이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SBS의 보도경향은 현 여당에 대한 ‘아부성 보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

고 있다. MBC의 경우 “국민회의는 수도권과 강원, 충북, 호남, 제주에서 자민련은 대전과 충남에서 한나라당은 부산과 대구, 울산, 경북, 경남에서 지지도가 가장 높았습니다”라는 분석으로 지역구도의 대결양상을 분석기준으로 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출신별로 볼 때 고건 후보는 호남과 충청, 최병렬 후보는 영남권 출신의 유권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 “출신별로 볼 때 임창열 후보는 호남과 이북 출신, 손학규 후보는 영남 출신의 유권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 라고 하여 출신별 지지도까지 분석하는 것은 지역구도를 고착화할 우려를 낳았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지역을 근거로 한 각 정당의 선거전략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이 이를 ‘선거전략’이라는 이유로 여과 없이 보도한다면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정책·공약 검증 부재>

대통령 동정 보도 과다, 흥미위주의 보도만 있을 뿐

98년5월18일~5월23일

KBS 9시뉴스, MBC 뉴스데스크, SBS 8시 뉴스
방송모니터분과

지난 한 주간 방송 3사의 뉴스가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대통령 동정보도나 발언을 인용한 보도가 많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각 단체장 후보들에 대해서도 여야간에 편파적 보도태도를 보였으며 정책이나 공약을 소개, 검증한 보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대신 TV토론에서의 공방을 부각하거나 유세장 스케치 기사 등 흥미위주의 보도에 치중했다는 비판이다.

대통령 동정 보도 과다

선거기간에 대통령 동정보도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방문 등 방송3사 대통령 동정보도는 정부정책을 홍보하기에 급급할 뿐만 아니라 선거보도 전후에 편집되어 여당에 유리한 선거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MBC의 경우 5월 20일 김 대통령 미국방문과 관련한 보도에서 17년 전 김 대통령의 미국망명 당시의 화면과 동시에 현재형으로 하여 현장감을 주었다. 더욱이 이 보도는 김 대통령의 과거에 대한 내용이 많아

주제와 부합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각 방송사의 대통령 동정·발언 보도내용은 대략 <표-2>와 같다.

‘썰렁한’ 선거분위기 부각

한편 선거운동이 본격화한 이후 보도화면에서 유권자의 모습을 찾기는 어려웠다. 물론 선거분위기가 확산되지 않고 일부 유권자의 경우 무관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언론이 지자체 선거의 의미를 살리지 못한 채 ‘썰렁한’ 선거분위기를 자주 의제로 설정하는 것은 냉소주의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MBC 뉴스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20일 <먹고살기 힘든데>라는 제목의 보도를 보면 “정치라는 것이 자꾸 변화가 있고 해야 하는데 아주 신물만 자꾸 나”라든가 “동네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유세는 너무 소음 같더라고요”라는 유권자의 말을 인용하였다. 또한 21일 뉴스에서도 “여야 지도부가 대규모 지원 유세에 나섰지

<표-2> 김대통령 동정·발언 보도내용

방송사	보도내용 - <>은 제목	날짜	쪽지
KBS	오늘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는 반드시 부정선거를 엄하게 다스리겠다면서 강력한 선거중립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부정선거 단호대처>	5/18	19
	김대중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 개혁을 강력하고 신속하게 밀고 나가 수출을 늘리고 투자 유치를 활성화 시켜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기업개혁 강력 추진해야>	5/19	24
	<'경제위기 극복, 여성이 앞장서야'>	5/20	
	<재향군인회 위기극복참여당부>	5/21	21
MBC	"이번 인사를 계기로...개혁정책을 가속화 하돼 보다 현실성 있게 해나가겠다는 의중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제정책 두툼>	5/18	10
	"김대통령은 오늘 정부가 기업의 개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부가 앞장선다>	5/19	12
	"또 역사의 승리가 되겠다고 역설합니다" "민주주의는 천천히 그러나 꼭 실현된다고 말합니다" "김대통령은 이미 이때 현재의 개혁 정책 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대통령은 사형위기를 모면한 망명자 아닌 국가 지도자로 미국 땅을 밟게 됩니다. 17년만의 일입니다"	5/20	11
	<김 대통령, 안기부 정보 수집 능력 질책>	5/21	
	<김 대통령, 인기 전화위복 계기 기대>	5/22	
SBS	개혁을 강력하고 신속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해 기업 개혁에 정부가 지금까지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DJ, "개혁반대 불용">	5/19	3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이후 두 번째로 해외 세일즈 외교에 나섭니다.<내달 6일 방미>	5/20	8
	오늘 회의는 2천 5백만명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42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보화 회의>	5/21	25

만 유세장 분위기는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았습니
다"라고 하여 냉소적인 유권자의 반응에만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였다.

이밖에도 SBS가 23일 <유세장 썰렁>이라는 제목
으로 "유권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무덤덤해서 후보
진영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농사짓는데 뭐 생
각이 없어요. 별로 선거에 대해서 먹고살기 힘드니
까"등 MBC와 마찬가지로 냉소적 유권자에 초점을
맞추어 비판받았다.

정책·공약 검증 부재, 흥미위주의 보도만 있을
뿐

각 방송뉴스가 후보들의 공약이나 정책을 소개, 검
증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TV토론에 대한 보도에
서도 공방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공약에 대해서는
소개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TV토론에 대한 유
권자의 반응이나 전문가의 분석도 찾아볼 수 없고
단지 각 당이 자기당 후보가 잘했다고 평가한 내
용만을 보도하고 있다. 또한 유세장 스케치 기사들
이 대부분 흥미위주의 보도였다는 비판이다.

MBC는 서울시장 TV토론회와 관련 20일 <우리편
잘한다>라는 제목으로 '상대후보에 대한 비판', '자
기당 후보의 아쉬웠던 점', '상대후보가 잘한 점'
등을 각 당의 선대위원에게 질문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경기도 지사 후보 토론회와 관련해서는 21일
<우리후보 잘했다>라는 제목으로 "양 후보진영은
서로 상대방을 비판하면서도 두 후보 모두 곤혹스
런 질문을 노련하게 피해 나갔다는 반응을 보였습
니다" "한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등
토론내용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만 치중하여
흥미성 보도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뿐만 아니
라 22일 <1분이 아쉽다>라는 제목의 "오늘 유세
중 유권자를 놓쳐 버린 뒤의 고건 후보"라는 기자
의 리포트도 '유권자 없는 선거보도'였다.

이밖에도 20일 KBS의 '부부 동반 출마' '남편대신
출마' '시각장애인 출마'등 이색후보를 소개한 것과
SBS가 23일 "목숨걸고, 이 생명 다하도록" 운운하
는 서초구청장 후보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것도
흥미위주의 보도로 지적 받았다.

한편 앵커의 멘트와 보도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었
다. 20일 MBC뉴스 첫 번째 쪽지에서 앵커는 "선
거에 대한 우리사회 일각의 냉소를 씻고 선거가
내고장 살림살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길이 돼
야 한다는 비중에서 오는 뉴스데스크는 이 소식부
터 전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리
포트를 보면, "한나라당은 전남과 전북, 그리고 광
주와 대전에 후보를 내지 못했습니다" "여성 후보
비율은 95년과 다를 바 없이 여전히 낮았습니다"
등 후보등록 결과에 대한 분석에 불과하다.

여야 편파보도 가장 심한 SBS 8시 뉴스

SBS의 뉴스 내용 및 편집에서는 여야에 대한 편
파보도가 두드러졌다는 비판이다. 18일 <D-1 선
거전 돌입>이라는 제목의 보도는 각 당이 이번 선
거에 임하는 입장 등을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국
민회의, 자민련 두 여당에 대해서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모두 승리' '200명 전 당원이 총력을 기
울이겠다'는 내용과 많은 사람들의 환호가 있는 화
면 등 심기일전하는 모습을 보여준 반면, 한나라당

에 대해서는 'TV토론이 너무 선거직전에 몰려있
다'는 불만과 '현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
일이 없다'는 등 여당을 비난하는 발언 그리고 소
수의 사람들이 있는 화면 등을 보여주었다. 특히
'야당이 TV토론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는 기자의
리포트 이후 이어진 인터뷰 내용이 '현정부에 대한
비난발언이어서 앞뒤가 안 맞는 편집을 했다.

SBS는 19일 <선거전 돌입>이라는 제목의 보도에
서도 한나라당 관련 리포트에서는 사람이 거의 없
는 '썰렁한' 화면을 보여주어 편파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앞서 지적한 대통령 동
정·발언 보도가 과다한 것과 더불어 여당 편향적
인 보도의 흐름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마람직한 보도

MBC가 22일 보도한 <막강한 기초단체장>은 지
자체의 의미를 살려주는 좋은 보도로 평가받았다.
"기초단체장이 생활행정이고 그리고 그 지역의 총
합적인 행정을 관장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것들의 중요
성을 조금 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우려됩
니다"라는 기자의 리포트는 지자체의 중요성을 강
조하면서 무관심을 비판하는 보도로서 유권자의
무관심을 그대로 전달, 냉소주의를 조장하는 보도
와는 달랐다.

또한 23일 <당이나 인물이나>는 "어떤 기준으로
기초단체장을 뽑을 것인지"를 실례를 들어 기초단
체장이 누구냐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달라
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구청장을 뽑을
때는 정당보다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인물을
더 중시해서 보는 것이 좋다"는 시민단체 관계자
의 인용 등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불공정한 선거 보도 여전>

기획취재 및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보도 필요

98년 5월 24일 ~ 5월 30일

KBS 9시 뉴스, MBC 뉴스데스크, SBS 8시 뉴스
방송 모니터 분과

지난 한 주간(5.24-5.30)에도 방송 3사 뉴스 보도는 여전히 선거 무관심과 정치 불신을 조장하고 여야에 대한 편파 보도 양상이 이어졌다. 언론은 특히 후보간 비방과 흑색선전에 대해 사실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검증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여야의 공방을 흥미위주로 보도하고 있어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MBC와 KBS에서 주최했던 TV토론에 대해 분석 및 심층 보도를 통한 문제제기보다는 양당과 방송사의 입장만을 그대로 보도하는데 그쳤다.

여야 불공평한 선거 보도 양상 여전

MBC의 28일 <열전현장-경기 성남>이라는 제목의 보도는 성남시장 후보들 중 무소속과 국민의회의 후보들의 육성은 보도한 반면 한나라당의 후보는 기자의 멘트로 간단히 처리하여 불공정 보도로 지적 받았다. 또한 후보를 소개하는 순서의 기준이 현직이 우선 인지 기호순서인지, 여당후보순인지 일관성이 없었다. (예 : 27일 기호 4(현구청장)-2-1번 순서/ 29일 기호 1-2-3-4(현구청장)-5

번 순서)

MBC는 또한 29일 <당보도 흑색 일색>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면서 크로마키 제목의 밑바탕에 한나라당 당보를 보여줘 마치 비방 흑색선전의 내용이 한나라 당에만 국한된 것처럼 보였다. 한편 KBS는 25일 김선길 장관이 선거운동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아 중앙선관위에서 조사중이라는 보도를 했다. 그러나 제목도 없이 스트레이트 기사로만 처리하여 축소 보도에 그쳤다. 무엇보다도 공정한 선거를 위해 고위공무원의 중립은 중요하다는 점에서 언론은 이에 대한 배경을 좀더 분석, 보도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MBC도 26일 <급기야 맞고발전>이라는 제목으로 한나라당의 고발건 중 하나로 보도 후반부에 최재욱, 김선길 두 장관을 고발하였음을 추가로 보도하는데 그쳤다.

유권자에게 선거 무관심 조장하는 보도 여전, 방송사마다 투표율 조차 큰 차이 보여 신뢰성 떨어져

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도 여전히 유권자의 무관심을 부추기는 보도양상이 나타났다. 25일 SBS 뉴스는 <투표율 저조비상>라는 제목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이 낮아져 투표율이 60%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보도를 하였다. 또한 26일 KBS 뉴스에서도 "이번 6.4 지방선거는 유권자들의 무관심으로 투표율이 50%대에 머물지도 모른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하면서 징검다리 휴일에 맞춰 여행을 가고자 예약을 하는 상황을 집중, 취재하였다. 그러나 무관심에 대한 비판보다는 그 양상만을 부각, 보도하는 것은 문제의식을 심어주기 보다는 선거에 대한 무관심을 오히려 증폭시킬 가능성이 많다는 비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각 방송사가 예측한 투표율에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는 50% SBS는 60%라고 보도하는 등 그 수치에 차이가 많이 났다. 더욱이 KBS는 27일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3일과 24일 이틀동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유권자 12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87%로 나타났습니다."라고 보도하고 있어 앞서 두 방송사가 예측한 투표율과 큰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투표율 예측에 대한 보도는 신뢰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흑색선전 및 비방에 대한 검증의지 부족

SBS와 KBS는 26일 각각 <추악한 비방전>, <비방전 가열>이라는 제목으로 여야간의 흑색선전과 비방이 엇갈림을 보도했다. 그러나 이들 보도는 유

권자에게 시시비비의 가릴 수 있는 정보를 주기보다 정치와 선거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보도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 여야 대변인의 발언을 여과 없이 육성으로 보도하는데 치중하기 보다 취재를 통해 검증이 가능한 것은 사실을 확인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TV토론 보도의 문제점

지난 95년 6·27 지자체 선거 때부터 본격화된 미디어 선거가 이번 6·4 지자체 선거에서는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5월 26일 KBS의 서울시장 후보, 27일 KBS 경기도 사 후보 토론회가 불공정 시비로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대한 방송 뉴스 보도도 TV토론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미약하고 후보간, 방송사와 후보간 서로를 비난하는 공방만이 오갔다. 이렇게 혼선을 빚고 있는 현행 TV토론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미디어 선거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심층 분석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바람직한 보도를 위한 제언 - 기획취재 및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보도 필요

방송사마다 서울이외 몇몇 특정지역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주로 후보간 경쟁에 치중하고 있을 뿐 그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지 유권자는 어떤 후보를 원하고 있는지, 지자체 실시로 주민들의 생활이 실질적으로 변화된 것이 있는지 따위에 대한

보도가 미비하다. 미약하나마 KBS 27일 <얼굴 없는 기초의원>이라는 제목으로 담당부처 과장의 "기초의원은 도로 개설이라든지 상수도 설치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자치단체 행정에 대하여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라는 멘트를 넣어 기초의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주는 노력을 보였지만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심도 있는 선거기획취재가 필요하다.

한편 올해 6.4 지방선거를 통하여 처음으로 시민운동단체, 여성단체, 노동단체 등에서 공천 혹은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후보를 내세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각 방송사마다 이에 대한 보도가 전혀 없고 기존의 여야의 대결구도 중심의 보도가 주를 이루어 지방선거에 대한 식상함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언론이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보도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우리는 이 언론을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관심 조장>

중앙당 인물위주의 보도로 지자체 선거의 의미 퇴색

98년5월31일~6월1일

KBS 9시뉴스, MBC 뉴스데스크, SBS 8시 뉴스
방송모니터분과

선거일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보도가 이번 선거의 의미와 유권자의 관심을 끌어내기보다는 무관심을 조장하는 보도태도로 일관했다. 또한 투표방송에 대한 자사 홍보와 방송사가 주최한 TV 토론에 대한 홍보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중요한 선거보도는 예전에 비해도 현저히 부족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 후보보다는 중앙당 인물위주의 보도, 지역판세 분석에서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지역분할주의식 보도태도도 되풀이되었다. 특히 MBC는 타방송사에 비해 선거무관심 조장보도가 특히 심했다는 지적이다.

'유권자들의 열기', '무소속 후보의 선전' 보도 - 타 방송사에 비해 나은 편

KBS는 6월 1일 <강원도 대격돌>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후보들의 유세모습이나 '격돌'모습은 전혀 보도하지 않은 채 조세형 국민의회의 총재권한대행, 박태준 자민련 총재, 조순 한나라당 총재 등 각 당 간부들의 지원유세만을 집중, 부각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지자체 선거의 의미를 중앙정치의

연장선으로 보고, 각 지자체 후보들보다는 중앙당 간부들에게 집중된 보도를 보이고 있어 지자체 선거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비판이다.

한편 KBS의 5월 31일 <부동표 공략 총력유세>라는 보도는 비교적 바람직한 보도에 근접했다는 평가다. 대부분의 방송보도가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조장한 반면 이 보도는 "부동표 공략에 나선 후보들의 목소리도 높았고 유권자들의 열기도 비교적 뜨거웠습니다. ... 그 동안 썰렁했던 연설회장도 많은 인파로 꽉 들어찼습니다" 등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모습을 부각, 보도하였다.

또한 6월 1일 <'무소속' 돌풍>이라는 보도에서는 "여야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호남과 영남권에서조차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하였다. 이 보도 역시 기존의 지역구도에 의한 판세분석 등 구태의연한 보도태도에서 벗어나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이 해당 지역의 민심을 말해주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바람직한 보도로 평가받았다.

유권자들의 무관심은 오히려 MBC보도가 조장한다.

MBC는 5월 31일 <20, 30대 잡아라>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20, 30대의 젊은 층이 선거관세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이 보도에서는 젊은 유권자들이 왜 선거에 관심이 없는지 총 12명의 젊은 유권자를 인터뷰하였는데 선거에 무관심을 나타내는 발언과 정치무관심, 불신에 대한 의견은 9명이나 인용한 반면 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3명에 그쳤다.

우선 “젊은 유권자들은 선거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신세대들에게 정치는 구태의연한 대상일 뿐입니다”, “불신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기자가 전한 뒤 “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놀러 가지요, 뭐 …” “그냥 노는 날이고 생각하지 투표하는 날이라고는 생각 안하거든요” 라는 유권자의 목소리를 담았다.

앞서 MBC는 ‘유권자들이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오히려 위와 같이 무관심한 유권자를 집중 인터뷰한 보도가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더욱이 각 방송사의 여론조사 결과 선거당일 투표율을 보더라도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유권자가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송은 무관심한 유권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중계식’으로 보도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비판하고 바람직한 투표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거에 관심을 표명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좀더 적극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같은 날 <브로커가 판친다>라는 보도에서는 “고질적인 대표행위는 이번 선거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라고 하여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사이비 방송, 대표행위, 금품요구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한 고발만 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방송사의 보다 적극적인 비판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6월 1일자 <한 표라도 더...>에서는 접전지역에서의 지역후보는 보이지 않고 여야 지도부의

유세장면과 주장만 보도하였다.

SBS의 지역구도에 의한 판세분석보도, 지역감정 조장할 우려있다.

5월 31일 SBS는 ‘14곡 혼전 중’이라는 제목으로 “국민회의 후보가 우세를 보이는 지역은 서울과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이렇게 5개 지역입니다. 자민련은 인천과 대전, 충남, 충북 등 4개지역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 반면에 한나라 당은 대구와 경남, 경북 이렇게 3개지역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지역감정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판세분석을 했다는 강한 비판이다. 방송은 더 이상 지역구도에 급급한 판세분석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계층별, 직업별, 성별, 지도 등 다양한 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같은 날 <1분이 아쉽다>라는 제목의 보도에서는 고건, 최병렬 후보 등이 출근길, 퇴근길 시민들과 만나는 장면을 스케치하면서 “어디까지 가세요?” “안녕하세요? 저 손학규예요” 등 사소한 멘트만 인용했다. 이러한 보도는 선거의 의미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가십성 보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SBS는 자사가 공동 주최한 TV토론회와 관련하여 6월 1일 2쪽이나 할애하여 보도하였다. 그 내용도 ‘KBS노조사태’ ‘환관책임론’ 등 상대후보의 개인적 이력에 집중한 ‘치열한 공방’보도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도의 마지막 멘트에서 기자는 “두 후보는 그러나 서울시정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실효성있는 실업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라고 맺고 있다. 이는 방송이 얼마든지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 마련’에 대한 두 후보의 정책을 쟁점화 할 수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방송은 이제 공방보도를 의제로 설정할 것이 아니라 정책대결을 유도, 검증 할 수 있는 공약중심의 보도를 해야 할 것이다.

6·4 지자체 선거보도 방송모니터 5차 보고서

<흥미 위주의 나열식 보도>

선거의 뒷모습에 대한 지나친 조명으로 선거보도의 본질 오도

98년6월2일

KBS 9시뉴스, MBC 뉴스데스크, SBS 8시 뉴스
방송모니터분과

지자체 선거가 중앙정치의 도구인가

지자체 선거를 이틀 남겨둔 6월 2일 방송3사의 선거보도는 중앙당의 지도부가 지나치게 부각되거나 흥미위주의 보도 등 구태가 반복되었다.

SBS는 <격전지 당력 집중>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 권한대행, 박태준 자민련 총재, 조순 한나라당 총재 등 3명의 지도부 지원유세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였다. 그 동안 언론은 이들 세 명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지자체 선거의 의미를 퇴색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 당사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보도하는 것은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자체 선거를 중앙정치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이 보도는 막상 후보당사자인 서울시장 고건, 최병렬 후보에 대해서는 기자의 멘트로 대체하였다. 뿐만 아니라 박태준 총재의 “충청도 분들이 우리 당을 만들어 주셨고 충청도를 중심으로 북으로 남으로 동으로 서로 세를 확장하고 있는데...”라는 발언은 지역감정을 조장하기에 충분하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를 전혀 비판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방송 역시 지역감정

을 조장한다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흥미위주의 나열식 보도

각 후보들의 유세장면을 스케치하면서 그들의 발언을 나열식으로 보도하는 데 그친 경우가 많았다. MBC의 <불꽃 집전>이라는 보도는 “도덕성을 내세운 한나라당 손학규 후보는 여성층을 겨냥해 시장을 찾았습니다” “여성 지지가 확산되면 역전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젊은층 공약과 여성표 잡기, 두 후보의 서로 다른 전략 가운데 어느 전략이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인가가 승부의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는 기자의 멘트다. “여성 유권자들에게 좀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 차림이 어때요?” 라는 손학규 후보 부인의 말 등 흥미위주의 보도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좋은 보도 사례 - KBS의 장애인 배려하지 않은 투표소 고발

한편 KBS는 <투표하기도 힘들다>라는 제목으로 전국 투표소의 20%가 지하·지상 2층 이상이어서 장애인들이 투표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발하여 바람직한 보도로 평가받았다.

“21세기 시민 비디오저널리즘에 도전한다”

■ 비디오 저널리스트(VJ) 과정 ■

강좌	강의주제	강사
[입학식] 강의소개		임재경(본회 언론아카데미 교장)
[1강] VJ란?		주명진(Q채널 前아시아리포트팀 팀장)
[2강] 1인제작(One-Man Production)에 대한 이해		이창재(Q채널 前아시아리포트팀 PD)
[3강] 촬영● - 카메라 기초(원리와 특성)		송덕호(영화조감독)
[4강] Video와 시민운동		김명준('노동자뉴스제작단' 대표)
[5강] 촬영● - 영상언어의 이해(사운드와 조명)		송덕호(영화조감독)
[6강] 뉴스 만들기■ (뉴스란?, 기사구성요건, 취재)		박수택(SBS 보도국 기자)
[7강] 방송문장론		최은영(SBS '그것이 알고싶다' 구성작가)
[8강] 수련회(MT) [특강 : 현장 경험담]		김덕영(VJ)
[9강] 편집● - 후반작업 개괄·편집실습		송덕호(영화조감독)
[10강] VJ와 법(法)		박형상(변호사)
[11강] 뉴스 만들기■ (과제물 시사, 토론, 평가)		박수택(SBS 보도국 기자)
[12강] 저널리즘 - 뉴스와 다큐멘터리		정길화(MBC PD, PD연합회 회장)
[13강] VJ와 시사·교양프로		김민선(VJ)
[14강] 미니다큐만들기■ - 기획·구성		안해룡(아시아프레스인터내셔널 서울사무소 대표, VJ)
[15강] 다큐멘터리 연출		김태영(인터컴 대표, 다큐멘터리 감독)
[16강] 미니다큐만들기■ - 기획·구성		안해룡(아시아프레스인터내셔널 서울사무소 대표, VJ)
[17강] 촬영● - 현장 촬영·인터뷰		변영주(다큐멘터리 감독)
[18강] 편집● - 자막기, 효과기, 믹서		송덕호(영화조감독)
[19강] 미니다큐만들기■ - 촬영		안해룡(아시아프레스인터내셔널 서울사무소 대표, VJ)
[20강] 아날로그 편집과 디지털 편집		
[21강] 미니다큐만들기■ - 촬영		안해룡(아시아프레스인터내셔널 서울사무소 대표, VJ)
[제작] 수료작품 제작 ~ 작품 제출		
[22강] 수료작품 시사 및 수료식		성유보(본회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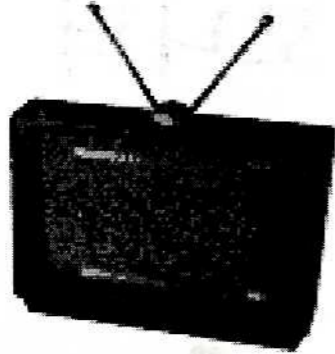
- 일정 : 3개월 과정, 매주 월·수 오후 7시~9시
- 정원 : 30명 (선착순마감)
- 장소 : 본회 교육관(마포 불교방송국 7층)
- 대상 : '비디오 저널리스트(VJ)'를 꿈꾸거나 이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카메라 지참)
- 수강료 : 400,000원 (카드결제 가능)
- 입금계좌 : 외환은행 189-13-03924-2 민연련

II

시사·보도프로그램 모니터



1. 시사·보도 프로그램 모니터



1998년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선정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IMF경제 한파를 의식하여 시청률경쟁을 지양하겠다는 연초의 약속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하고 각 방송사의 정규뉴스는 대부분 흥미위주의 보도에 치우쳤다. 특히 신창원 관련 뉴스보도는 신씨의 주변인물과 범죄행각을 전달하는데 있어서 선정적인 내용에 비중을 두었고, 박세리 관련 뉴스에서는 영웅 만들기에 급급했으며 우승의 의미를 상업적 가치에 의존했다는 비판이다. 기타의 시사다큐 프로그램에서도 심층취재의 기법을 빌고는 있지만 흥미위주의 선정적 소재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곧 몰래카메라와 재현기법의 남용으로 인한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화면과 내용으로 이어져 많은 시청자 단체의 비판의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몇몇 시사다큐 프로그램의 경우는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졌던 정치권력이나 언론, 재벌에 관한 문제점을 다루어 호평을 받기도 했다.

시사·보도프로그램 모니터

<신창원 관련 보도>

선정적 접근, 인권무시 잘못된 범죄 보도 전형 보여줘

98년7월1일~7월31일

KBS 9시뉴스, MBC 뉴스데스크, SBS 8시 뉴스
방송모니터분과

지난 7월 16일 경찰이 탈옥수 신창원의 검거에 실패하자 언론은 경찰 수사의 총체적 허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신창원과 관련된 대부분 보도들이 흥미 위주에 치우쳤다는 지적이다. 특히 타사에 비해 많은 보도량을 보였던 KBS 뉴스 보도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우선 신씨 주변 인물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KBS는 7월 17일 "신창원의 여인들"이란 제목으로 신씨가 도주 기간 동안 만난 여인들을 집중 보도했다. 그러나 동거와 임신, 유산 등 선정적인 내용에 중심을 두었고, 이러한 보도가 당사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를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도소 동기 유 아무개 씨에 대한 보도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7월 26일 <비호세력 추적>이라는 제목으로 유씨를 보도함으로써 유씨가 곧

'비호세력'이라는 예단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또 "동향이니까 굉장히 친하게 지냈죠. 김제에 사는 거 아니까"라는 유씨의 발언 일부만을 인용해 이 같은 우려를 더욱 크게 했다.

반면 SBS는 27일 <자금줄 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지만 "연락 온 적 없었어요. 만약 연락이 왔다면 형사들이 더 먼저 알죠"라는 유씨의 반박 발언을 인용했다. MBC도 28일 기자 리포트를 통해 "유씨는 신창원을 도운 적이 없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자신을 찾아올 가능성은 있다며 그때는 자수를 권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라고 보도해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KBS의 선정적인 보도태도는 신씨의 '신출귀몰함'을 부각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초인적인 생존력과 치밀함"(17일), "고층아파트도 문제없음"(18일), "이

렇듯 장기간 경찰의 수사망에 걸리지 않는지 그 비결을..." "강인한 체력"(20일) 등 방송이 신씨를 영웅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또 KBS는 17일 "부유층 주민 신고 안해", 20일 "고급빌라 도둑" 등 도주기간 신씨의 절도 피해자 중 상당수가 부유층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신씨를 미화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다음날인 21일 바로 "대부분 평범한 증산층...호화 빌라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다세대 주택...도난 당한 권모씨의 집도 30여평 규모"라며 오락가락 하는 보도행태를 드러내기도 했다.

고액의 현상금에 대한 보도태도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상금 5천만원에 대해 SBS만 21일 "경찰이 공여지책으로 내놓은 처방"이라고 지적했을 뿐, KBS와 MBC는 21일, 22일 보도에서 각각 "사상 최대액수"와 "국가안위를 뒤흔드는 간첩수준으로 취급받고 있는 썸"이라며 흥미 위주로 보도하는데

고쳤다.

그러나 신씨 사건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를 지적한 20일 MBC 보도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민의 신문 제255호 8월24일

이날 MBC는 <구타 때문 탈옥>이라는 보도를 통해 교도소의 인권유린 때문에 탈옥했다는 신씨의 주장을 전하면서 "신창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교도행정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인권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인권운동가의 인터뷰를 통해 교도소 내에서 일어나는 인권유린의 실태를 보도하는 등 비교적 냉정한 입장을 보였다. 이는 신씨의 수기 중 가혹행위를 한 교도관에게 복수하기로 했다는 부분만 보도한 타사의 경우와 대조를 이루었다.



시사·보도프로그램 모니터

<박세리 관련 보도>

'박세리 영웅화' 상업적 가치에 치우친 언론

98년7월1일~7월12일

KBS 9시뉴스, MBC 뉴스데스크, SBS 8시 뉴스

방송모니터분과

지난 7월 7일 박세리의 98' U.S 오픈대회 우승 소식은 다수 국민들에게 기쁨을 준 쾌거였다. 무엇보다도 미국인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대회에서 외국인이 정상에 오른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박 선수의 우승은 더욱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하는 언론이 지나치게 흥분, 박세리 선수에 대한 '영웅화'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뿐만 아니라 박 선수의 우승의 의미를 상업적 가치에 의존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특히 SBS는 우승 당일인 7월 7일 스포츠뉴스 시간까지 메인 뉴스 시간으로 할애하여 전체 34쪽지중 17쪽지를 할애하였다.

상업적 가치 부각하는데 급급한 SBS

SBS는 7월 7일 "20살 나이의 박세리 선수는 IMF에 찌든 전 국민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라며 박 선수의 우승을 평가했다.

그러나 "올해에만 간단히 100억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라든가 "스포츠 재벌의 대열에 끼게 될 것입니다"를 비롯하여 상금, 포상금 등을 다룬 내용이 지나치게 많았다. 또한 7월 7일 뉴스에서도 SBS는 "프로 스포츠의 세계에서는 실력이 곧 돈이기도 합니다"라는 앵커의 멘트에 이어 "삼성은 박세리에게 이미 4억원의 보너스를 지급했고 추가 포상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두 메이저대회 상금과 이런 부수입을 합해 박세리가 올해 이미 통장에 입금시킨 돈은 10억원을 넘어섰습니다"라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경제난



에 시달리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골프 대중화'를 운운하는 보도 역시 국민들의 소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우리 나라에서 '골프'라는 스포츠는 '환경오염'과 '비용'의 측면에서 대중화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SBS가 7월 9일 보도한대로 "훈련비만 1년에 2천만원 드는" 사실만 봐도 골프대중화가 시기상조임을 잘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박세리 선수의 우승이 곧 골프의 대중화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무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BS는 7월 6일 "상류층의 놀이로 치부되던 골프를 보는 눈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그 동안 '금요골프' 등 골프중계에 열중했던 SBS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박세리 선수의 우승을 계기로 이 프로에 대한 시청률이 급상승했다는 분석이다. 한겨레신문 7월 12일자에 의하면 "<금요골프>는 15초당 광고단가가 3백여만원으로 한 회가 나갈 때마다 6천만원이상의 추가수익을 올리는 셈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PGA 경기 중계권을 가진 TWI 한국지사와 98년 한해동안 6만 달러에 독점 중계권 계약을 맺은 것도 SBS가 박세리 선수를 지나치게 미화, 부각하는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선수 영웅 만들기 지나쳐

"이 시대의 영웅", "세계가 극찬", "신기록 제조기"(MBC 7월 7일), "2관왕 등극", "골프 역사 다시 쓴다"(KBS 7월 7일) 등 박세리 영웅 만들기에 열중한 보도들이 많았다. 이러한 태도는 SBS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SBS는 7월 9일, "우리 여성의 위대한 잠재력을 세계에 선포한 쾌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한 아주 최선의 걸작입니다"라는 황산성 변호사의 극찬 발언을 인용, 보도하였다. 또한 7월 12일 "박세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미국은 물론 전세계 골프계를 풍미하는 불세출의 슈퍼스타로 우뚝 솟아있었습니다"라고 하여 영웅화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박세리 선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골프는 잘 모르지만 정말 신들린 듯 하다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라는 앵커의 멘트는 너무 감정적 표현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SBS는 온통 "신들린 듯한 경기모습", "신들린 행진"등 연일 '신들린'이라는 표현을 썼다. 한편 전문적인 골프용어로 박선수의 경기를 분석하는 보도내용은 다수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을 굳이 정규뉴스시간에 내보낼 필요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송의 박세리 '영웅 만들기'는 자칫 박 선수에게 큰 부담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도 지나친 영웅화는 그 반대급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솔한 태도라 아닐 수 없다. 차범근 감독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를 잘 말해준다. 또한 아버지와 감동적인 포옹보다는 먼저 상대 선수와 캐디를 위로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캐디와 악수하는 게 순서라는 지적도 있었다. 골프는 매너와 규칙을 중시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이다. 언론이 이러한

점을 지적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MBC PD수첩 「오보 그 진실을 밝힌다」

이승복 보도 오보 논란 - 취재과정의 불투명성 밝혀낸 점 돋보여 -

98년9월22일 밤11시~11시50분

MBC PD수첩
방송모니터분과

지난 9월 22일 방영된 PD수첩은 언론의 잘못된 보도 사례와 그것이 야기한 피해를 면밀히 살펴본 좋은 기회였다. 이 프로그램은 이승복 군, 금강산담, 서해 웨리호 선장 관련 오보 등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오보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무엇보다도 최근 오보논란이 일고 있는 '이승복 군'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을 밝혀내려는 객관적 접근 태도가 돋보였다는 평가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을 하고 죽어갔다는 일명 '이승복 신화'는 안보교육에 적극 활용되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신화'로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조선일보의 보도는 오보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검증 받은 바 없었다. 92년 기자협회가 발행하는 [저널리즘] 가을호 이후 최근에 와서야 몇몇 매체와 시민단체들이 당시 보도의 문제점을 들고나섰던 것이다.

이 기사에 오보가능성은 조선일보 기자가 사건발생후 유일한 생존자이자 증인인 형 학권씨와 실제 인터뷰를 했거나 만났느냐라는 문제에서 비롯된다.

이와 관련 PD수첩이 보여준 접근 방식은 돋보인다. 실제 기사작성자인 당시 조선일보 기자와의 인터뷰, 유일한 생존자인 형 이승권씨와의 인터뷰, 당시 타사 취재 기자들의 증언, 그리고 객관적인 정황 분석을 통해 조선일보 기사에서 인용자로 나온 형 학권씨와의 직접 인터뷰등은 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두 번째 이웃 주민들의 목격담이나 증언을 현장에서 실제로 취재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접근도 상당히 신중하며 합리적이었다. 유일한 목격자이자



생존자이며 또한 증언자인 형 학권씨를 사건 발생 당시 접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분석하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조선일보 기자와 접촉했거나, 아니면 관련 사실을 이웃 주민에게 알렸는가라는 여부를 생생한 증언으로 취재한 것이다. 이러한 객관적인 과정을 거쳐, 조선일보 기자가 사건 당시 현장에서 실제 주민들의 목격담을 토대로 기사작성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PD수첩이 오보논란의 핵심을 잘 파악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취재과정의 불투명성을 밝혀냈다는 점이다. 확실한 취재 없이 작성된 기사가 오보논란의 씨를 안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사실 보도'라는 기사작성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 지 다시 한번 각인케 했다. 더욱 돋보인 것은 실제 기사작성자인 조선일보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반론의 여지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오보가 발생한 후 우리 언론이 자기 합리화에 능

한 면을 일본신문의 오보 정정보도 예와 비교, 언론인 윤리 문제에 접근했다는 것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보는 제도적인 한계, 취재편의주의, 무책임한 기자의식 등 여러 가지 요인에서 비롯되고 그 가능성도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그렇다면 더욱 문제인 것은 오보를 대하는 태도이다. 객관적으로 재검증을 하고 오보를 시인, 반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상과 정정보도를 철저히 수행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국언론은 실수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철저한 자기 반성보다는 모든 수단과 논리를 총동원하며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우를 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쪽이 신뢰받는 언론, 진정한 권위가 살아있는 언론으로 거듭나기가 가능한 것일까? PD수첩은 그 해답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고 볼 수 있다.

시사·보도프로그램 모니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국군 포로 장무환」

시사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흥미위주의 선정성에 의존

98년10월11일 밤11시~11시50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모니터분과

최근 대부분의 시사다큐 프로그램이 선정성 시비에 올라있다. 비록 심층취재 형식을 빌고는 있지만 흥미위주의 선정적 소재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화면과 내용들이 시청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SBS의 대표적 시사다큐멘터리인 <그것이 알고 싶다>도 예외가 아니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 선정성은 물론 시사다큐멘터리가 지녀야 할 날카로운 시각과 문제해결 방식이 아쉽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애초 SBS는 다른 시사다큐와 달리 '시사 현안 이외에 휴먼스토리나 세계의 이색풍물 등으로 영역을 넓혀 소재난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소재난을 명분으로 공익성보다 시청률을 의식하는 태도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 받고 있다.

지난 10월 11일 잊혀져 가는 국군포로 문제를 재조명한 <국군포로 장무환>의 경우 시기 적절한 소재와 현지 동행 취재라는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

적으로 평가받았지만 막상 내용에서는 그에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접근과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는 '장무환'이라는 일 개인의 파란만장한 삶에 초점을 둬으로써 오히려 '드라마'에 더 가까웠다는 것이다. 물론 소재의 폭을 넓힌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그러나 소재의 폭을 넓힌다고 해서 바로 시사다큐멘터리의 본래 성격까지 퇴색시킬 필요는 없었다는 게 중론이다. 이날 방영분은 날카로운 시각으로 사회를 조명, 문



제해결을 모색하는 시사다큐멘터리로서의 기능에 이르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드라마인가 시사다큐멘터리인가

초기에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국군포로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하던 진행자의 의도는 프로그램이 중반에 들어서면서 무색해졌다. 장무환씨의 인생사, 가족사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그에 대한 동정심 유발에 치중했다는 지적이다. 물론 국군포로 송환 대책의 시급함과 절박함을 알리기 위해 포로 개인의 비극적인 생활을 조명할 수는 있다. 그러나 북에 남은 자식이 몇 명인지와 친자인지의 여부, 남한에 살고 있는 부인과의 재회와 재회 이후의 심리묘사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흥미진진함을 더해 주는 드라마에 불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종일관 '휴머니티'를 살리기 위해 작위적인 연출도 서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남한에 생존해 있는 가족과의 재회장면, 재회 이후 동행했던 장면에서 장씨 내외의 감정까지도 작위적으로 연출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진행자 말대로 초조감에 지칠대로 지친 장씨 내외에게 제작진은 어색한 입맞춤과 악수를 요구한 것 역시 작위적 연출이 엿보였다는 지적이다.



객관성 결여, 산만한 구성

이 프로는 국군 포로 송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하기 위해 신빙성 있는 객관적 자료를 거의 제시하지 못했다. 초반부에 장무환씨가 현재 기거하고 있는 제3국의 한국 대사관으로 전화하는 내용이 있었으나 노쇠한 목소리와 애매한 통화내용으로 대사관의 도움을 받기는 역부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자는 대사관의 불친절함을 지적하고 동시에 장무환씨에 대한 동정심을 묘사하려는 역지가 엿보였다.

한편 국군 포로 2세와 주민들의 입을 빌어 북한 내에서 이뤄지는 국군 포로와 그 후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와 그들의 참담한 생활상을 그려 내는 데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이런 산만한 구성속에 국군포로 송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소극적 태도는 간과된 채 북한에서 자행되는 그들에 대한 학대가 지나치게 부각되었다는 지적이다. 결국 [국군포로 장무환]편은 그 긍정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삶에 초점을 둔 '드라마' 부각, 우리 정부 비판을 위한 불충분한 자료, 산만한 구성 등 주제를 뒷받침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iTV 터놓고 말합시다 『사상의 자유와 최장집 교수 사태』

언론 왜곡보도 문제 간과, 아쉬움 남긴 '사상논쟁'

98년11월10일 밤11시~11시50분

iTV 터놓고 말합시다

방송모니터분과

지난 11월 10일 인천방송 <터놓고 말합시다>(오후 8시 ~ 9시 방영)에서 마련한 '사상의 자유와 최장집 교수사태'라는 토론회는 방송이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일깨워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받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홍 신부와 박석균 자유총연맹 자유민주연구소 연구위원이 조선일보 보도를 긍정



하는 입장을 대표해서 나왔고 민변 소속의 박형상 변호사와 성대 신방과 이효성 교수가 이에 반대되는 입장을 대표하여 토론에 임했다. 그러나 처음 토론에 나선 박홍 신부는 어떤 입장을 대표하

는지 혼란스러울 만큼 자기 입장을 명확히 피력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토론주제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장황하게 나열하고 심지어 한총련 학생들의 '지침서'를 낭독하는 등 과거 근거 없이 사상 공세를 퍼 물의를 일으켰던 행태를 반복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웠다. 그는 또 '최 교수 논문에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최 교수 논문을 문제삼은 보도나 입장 등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있음을 내비쳤다. 이는 사실상 최교수 입장을 옹호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반면 자유총연맹의 박석균 연구위원은 많은 예를 들고 논리정연하게 주장을 펴는 모습에서 토론에 임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탐독한 노력이 엿보였다. 그러나 박 연구위원 역시 토론주제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장황하게 나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특히 한국전쟁을 '민족해방전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한 장황한 설명으로 마치 최 교수 논문이 민족해방전쟁이라고 한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충

분했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최교수 논문이 그렇다는 것인가? 당신의 해석이 그렇다는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후자라고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주의적 사관’을 구구절절 설명한 것은 의도적으로 최교수와 연관시키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박 형상 변호사의 경우 최장집 교수의 논문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인용, 해석하고 미국의 판례를 들어 설명하는 등 주제에 부합하는 토론이 돋보였다. 또 이호성 교수는 다양한 시각의 존중을 강조하면서 최 교수 논문에서 드러나는 ‘언어의 애매함’을 말꼬리 잡듯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 역시 왜곡해석으로 인한 ‘매도’의 가능성을 경계하는 태도가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이 토론회에서 가장 돋보인 점은 객관적인 자세로 토론을 중재하고 자신의 주장도 적절히 피력하는

사회자의 태도였다. 특히 토론자가 주제에서 벗어나는 논지를 펼 경우 반드시 바로 잡아주고 토론자의 발언에 되질문을 하여 어설픈 논리로 주장을 전개하는 것에 쐐기를 박는 것은 어느 토론회에서 보기 드문 ‘진행자다운’ 모습이었다. 또 ‘토론회를 통해 결론을 유도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입장의 차이를 인정하자’는 멘트 역시 토론회 사회자로서 객관적 입장을 견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의 방향이 ‘사상논쟁’으로 흐른 것은 최교수 보도 문제의 핵심을 놓쳤다는 평가다. 무엇보다도 이 논란의 시발이 된 월간조선의 보도 등 사실예곡을 근거로 한 조선일보사 발행 매체의 기사 문제점이 간과되어 언론의 예곡보도가 야기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2. 오락 프로그램 모니터



IMF라는 경제대란 속에서 구조조정은 경제계 뿐만 아닌 방송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쳐 98년 오락프로그램에 변화가 모색되는 듯했다. 이는 고단한 현실에 지친 시청자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서민적인 가족 드라마를 표방한 드라마의 수적인 증가 뿐만 아니라 제작비 절감과 함께 식상하지 않은 일반인을 프로그램에 출연시킴으로써 참신성을 강조한 오락프로그램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가부장적이며, 물질만능의 사치스러움을 갈망하는 가족드라마는 그 속에서 서민의 모습이란 찾아 볼 수 없었으며 남녀간의 애정문제등 종전의 드라마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시청자들의 방송참여라는 긍정적인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오락프로그램에 한정된 참여 및 웃음 유발의 한 매개체로 퇴색된 모습은 방송사들의 또 하나의 한계성을 드러냈다.

게다가 특정계층(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오락프로그램 속에서도 현실을 살아가는 진지한 모습은 간 데 없고 허울좋은 껍데기만이 수동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상황은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다.

<시청자 참여 오락프로그램>

웃음 전달의 도구가 되어 버린 시청자

98년11월1일~11월30일

일요일은 즐거워(KBS), 일요일일요일밤에(MBC),휴먼TV 앳!나의 실수(MBC) 중심으로
방송모니터분과

'수동적 출연'에 그친 시청자 참여 오락프로그램 방송은 여전히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다. 최근 통합방송법 통과 유보를 선언한 집권당 역시 과거 정권처럼 방송 장악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방송제작 메커니즘은 거대 권력구조와 무관하지 않으며 상업주의에 찌든 우리의 방송현실을 감안하면 자본



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시청자의 방송참여는 새로운 방향모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청자들이 방송에 참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편지, 전자우편, 전화, 팩스, 인터뷰, 직접 출연 등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시청자 참여가 없다면 다수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바로 얼마전까지만해도 주로 라디오에서 두드러졌으나 최근 텔레비전 매체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그 확산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다수가 오락 프로그램이다. 오락프로그램은 '블랙 코미디'가 아닌 바에야 진지함보다는 '가벼움'이 지배하는 게 사실이다. 이들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비춰진다. 그러나 실제 구성과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짜여진 각본 속에 순응하고 웃음거리의 대상이 되는 시청자를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시청자 참여'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런 식의 시청자 참여는 각 방송사가 IMF 시대에 직면하여 출연료를 삭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과 꾸밈없어 보이는 일반인의 방송출연이 시청자들에게 호소력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방송의 주인이어야 할 시청자가 거대 메커니즘 속에서 능동을 가장한 수동적 존재로 전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 나아가 진지함이 돋보이는 교양 프로그램과 달리 웃음유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오락프로그램에서의 시청자 참여는 웃음으로 포장된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도구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웃음의 이데올로기' 효과적 전달

안방 시청자가 텔레비전 출연자와 동일시를 느끼기 쉬운 경우는 장르로 보면 '토크쇼'이며 형식으로는 '시청자 출연'이라 할 수 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 등장하는 평범한 출연자들은 화려한 스타보다 방송 메시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바로 우리 이웃처럼 친근한 이들을 대하면서 안방 시청자는 그들과 쉽게 동일시되고 연출된 모습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주말 프라임타임대 시간에 편성된 버라이어티쇼에서 시청자 출연이 잦다. 한 가정을 찾아가 돈을 숨기고 동행한 연예인이 그것을 찾게 한 다거나(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 시청자들이 보낸 우스운 경험담을 재연하여 보여주기도 한다(MBC 휴먼TV 즐거운 수요일). 전자의 경우, 현금을 숨기고 찾는 과정에서 시청자들은 '돈에 울고 웃는' 존재로 비춰진다. 돈이 바로 상품이기에 때문

이다. 카메라는 시종일관 연예인을 집중하고 이를 지켜보는 출연시청자와 안방의 시청자는 카메라 렌즈 밖에서 진지한 스타의 움직임을 주시할 수밖에 없다. 후자의 경우를 보면 피사체는 사연을 보낸 시청자이거나 그의 역할을 대신하는 연기자이다. 그러나 이런 피사체는 진지한 모습이 아니라 실수담을 재연하며 우습게 비춰진다. 한 사람의 우스운 실수담으로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르나 웃음의 대상이 된 시청자는 비록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을 수 있다.

한국일보 17

특정 계층의 이미지 왜곡할 우려

시청자가 웃음거리인가

주부등 참여 일부 오락프로그램 미숙함 빌미로 웃음대상 삼아 진지함 없고 특정계층 왜곡도

웃음을 흔들며 인기가수들의 노래를 특정한 부르는 대학생들. 계입을 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반강제로 예정을 확인하는 전업주부들(이성 KBS2 '일요일은 즐거워'·사진) 방송사에서 숨긴 돈을 찾아 스타와 함께 온 집안을 뒤지는 가족들(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 시청자참여 오락프로그램에 비친 우리의 자화상이다. 이무리 오락프로그램을 하지만



시청자참여는 그동안 각 시청자단체나 방송계 외곽에서 주장해왔던 것. 출연자의 전문성이나 연기도를 고려하는 방송사의 입장에서 시청자참여 프로그램이 확산되는 의의는

특정계층을 주요 출연진으로 선정, 계층의 특성을 '살린' 경우도 있다. 대학생과 주부가 대표적이다. 먼저 대학생의 경우를 보자. 일요일 오후 7시에 방영되는 KBS-2 TV [일요일은 즐거워]의 '캠퍼스 영상가요'는 대학생들의 장기를 맘껏 보여준다. 그러나 사회문제, 진로문제 등에 대한 고민 등 대학생들의 다양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흥에 겨운 모습만이 범람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장기 역시 전전한 대학문화가 발산되었다기 보다는 연예인 따라하기에 그치고 있다. 오락 프로그램에서 심각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을지 모르겠다. 바로 이 점 즉 '웃음'을 전면에 내세운 프로그램에서 시청자가 대상화되는 것이 오락 프로그램의 한계이다. 대학생들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사회적으로 비교적 관대한 기준을 적용 받는 대학생들은 드라마, 쇼 등 오락 프로그램에서 긍정적으로 그려지기 일쑤다. 반면 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행동하는 학생운동권에 대해서는 언론의 왜곡보도와 부정적 이미지 조장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 매우 대조적이다.

어쨌든 대학생들을 집중 조명하는 프로그램은 대체로 많은 시청자들의 시야를 고정시킨다. 즉,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중고생, 대학진학에 실패한 또래 등 일부 계층의 선망대상이 될 수 있는 대학생들이 화면에 등장하는 것은 동일시를 통한 대리만족을 가능하게 한다. 동시에 상대적 소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현실과 상관없이 대학과 대학생들이 꿈과 재치, 낭만으로 이미지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인 암울했던 80년대 당시 사회적 상황을 전혀 담아내지 않았던 청춘 영화나 청춘 드라마 등이 범람,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점을 새삼 떠올리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주부계층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일례로 [일요일은 즐거워]의 한 코너인 '달려라 울엄마'는 전업주부들이 게임하고 남편에게 전화 거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때 잘생기거나 인기 있는 남자스타(연예인, 아나운서 등)를 같이 출연시켜 주부들의 '주책

스런' 모습도 과감없이 전하고 게임에 임한 주부들은 회화화되기 십상이다. 남편에게 전화 걸어 특정한 반응(혹은 답변)을 얻어내는 게임에서는 '몰래 카메라' 형식이 시도, 훑쳐보기를 통한 웃음유발이 이루어진다. 이때 '관찰 당하는' 남편은 사생활을 침해받을 수도 있다. 게다가 부인한테 거친 말을 내뱉는 경우라도 발생할라치면 전화 건 주부의 인격모독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주체적 참여방식 도입해야

시청자의 방송참여는 좀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목소리다. 그러나 몇몇 프로그램처럼 단지 방송국의 각본에 따른 출연에 그치는 것은 오히려 '이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가벼운 일색의 프로그램에서 웃음거리로 비쳐질 우려가 있는 형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좋은 세상'(KBS 2)과 같이 삶을 고민하는 진지한 모습이나 주요 언론이 외면하는 현장을 시청자 몫으로 주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부대상 토크 프로그램>

결혼과 성으로 이름 지워진 주부들, 그들에게 좀더 다각적인 앵글을 맞춰야...

98년12월1일~12월31일

행복채널(KBS1), 생방송 임성훈입니다(MBC), 한선교의 좋은 아침(SBS)

방송모니터분과

'결혼'과 '성'에 묶인 주부들

과거 주부대상 프로그램은 교양장르에 속하는 생활정보 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장르가 확장되고 있다. 심지어 주말 주시청시간대에 편성되는 오락프로그램에서도 주부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일명 황금시간대에 시청률 높기로 유명한 오락프로그램에 방송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에 속하는 주부들이 등장하는 것은 가히 놀라운 변화다. 그러나 본 모니터팀은 이러한 형식이 주부들을 주체적으로 참여시키기보다는 웃음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한 바 있다.('시청자 참여 오락프로그램 무엇이 문제인가' 보고서 참조) 이는 주부들을 주 시청층으로 하는 아침 프로그램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생활정보제공이라는 유익성은 축소되는 대신 토크쇼 등 흥미위주의 오락프로그램이 아침 황금시간대에 집중편성,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아침 9시 30분경부터 약 한시간 편성, 방송되고 있

는 주부대상 토크쇼는 출연진 대부분이 연예인이며 1~2명의 보조진행자가 공동 진행하는 등 형식 면에서는 심야토크쇼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다만 연예인 부부나, 갓 결혼한 연예인 혹은 가족을 동반한 연예인 출연 등 '결혼', '주부'라는 틀 속에 있는 출연자들이 많다. 이처럼 연예인일색으로 출연자를 선정하고 그들의 가정생활과 연예담으로 대화주제를 한정하는 것은 주부들의 다양한 삶과는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획일화된 모습을 반복재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연예인들의 사생활 일변도로 대화의 주제를 삼는 것은 공중파의 사유화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주부프로그램으로까지 이어진 전파의 사유화 '행복한 주부상'만 반복재생, 다양한 주부실상 비추기에는 역부족

시청자들은 연예정보 프로그램, 심야 토크쇼 등에서 범람하는 연예인 얘기로 그들의 생활을 필요이

상으로 많이 알게 된다. 이러한 양상이 주부프로그램에까지 이어져 결국 전 시청자에게 연예인의 사생활을 알도록 강요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무리가 아니다. 게다가 출연자들 대부분의 가정생활과 결혼에 얽힌 얘기는 '행복한' 삶 일색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일반 주부들의 삶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가정불화를 겪고 있는 주부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시청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연예인 주부를 매우 부러워하며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거나 '행복한 주부'라는 이미지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현실과 상관없이 위안을 얻을 것이다. 결국 출연 연예인은 부러움의 대상이자 프로그램의 주인공이며 시청자들은 연예인을 향해 자신을 비추어볼 뿐이다.

진행자의 부적절한 태도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점이다. SBS에서 방영하는 [한선교의 좋은 아침]의 한선교는 메인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기 싫은 이야기를 하는 듯하고 초대손님과의 대화를 원활히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오히려 노사연, 강남길 두 사람의 보조진행자가 더 적극적인 진행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MBC의 '생방송 임성훈입니다'의

18 1998년 12월 24일 목요일

결혼·가정 얘기 말고 뭐 없나"

주부 토크프로 연예인편중... '사회참여 확대' 반영 미흡

민연련 모니터 보고서

텔레비전의 주부대상 토크프로그램이 연예인 일색으로 출연자를 선하는데다, 내용도 결혼과 성 등 특정 주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부들의 다양한 삶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연련) 총모니터본과가 아침 9시30분부



은 보고서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들은

한겨레신문 12월 24일

진행자 임성훈은 다소 독선적인 진행자세로 비판 받고 있다. 임의 경우 게스트나 보조진행자의 발언을 자신의 말로 한 번 정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행자로서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될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다.

준비 안된 진행자, 성의 없는 구성과 내용, 제작자 역할 의심스러워

한편 세 방송사 모두 진행자의 준비상태가 미흡하다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다양한 대화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나 게스트의 개성에 착안한 대화보다는 결혼과 가정생활 등 틀에 박힌 질문으로 일관한다는 것이다. 작가와 진행자 모두 게스트에 관한 사항이나 대화주제를 좀 더 고민한다면 적어도 같은 주제로 맴돌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준비소홀은 비단 진행자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제작자와 방송사 측에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토크쇼는 제작비가 적게 드는 장르 중 하나다. 따라서 그 구성과 내용에 더욱 성의를 보여야 하고 '토크'로 승부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인 위주의 출연자 선정으로 일단의 시청률을 확보한 이후에는 프로그램을 위해 어떤 제작노력을 기울이는지 발견하기 어렵다. 기껏 준비하는 것은 '차트'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인기인 위주의 출연자 선정과 제작의 무성의함이 비례하며 프로그램의 질을 하락시키고 있다는 결론이다.

사고 폭을 제한하는 주제선정 탈피해야

앞서 지적한대로 대화주제는 '가정'과 '결혼'얘기로 한정되기 일쑤다. 이는 방송이 여전히 전통적인 주부상을 준거틀로 보는 가부장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 또 하나의 대화주제가 있다면 바로 '성'과

'건강'이다.

'성'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전혀 없다. 오히려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주제이기도 하다. '건강'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주부대상 토크 프로그램에서 '결혼' 아니면 '성' '건강'외에 다루어지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두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 번째, 주부들의 사고 폭을 방송사가 미리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송이 계속된다면 주부들의 사고가 편협해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실제로 방송사가 '주부들이 원하니까'라는 식의 시청자 주권을 내세우는 경우가 어디 한두번인가. 방송사 스스로 조장하는 점은 고려치 않고 시청자들의 의식을 타하는 것은 스스로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한 것이기도 하다. 프로그램의 질이 향상되지 못함은 물론이다.

두 번째 '성'과 '건강'은 잘 다루면 교육적 효과가 있지만 자칫 선정적 주제로 전락, 상품화될 우려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주부토크에서 다루는 성과 건강 얘기는 '한선교의 좋은 아침'에서 주 1회(매주 금) 편성하는 '성상담'코너가 비교적 유익한 것을 빼면 대부분 흥미에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대화를 나누거나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여과 없이 방송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참여' 주부들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보자

평면적 구성, 연예인들의 결혼과 가정사 등 제한적인 대화주제, 육체적 건강 혹은 몸매를 신경 써야 하는 주부생활(KBS2 [행복채널]의 에어로빅 코너)이 현재 주부토크쇼의 자화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각종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 활약하는 '건강한' 주부들이 적지 않다. 그들은 주부 프로그램에서 그려내고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개인적 삶보다는 공동체 삶을 지향하고 노력한다. 게다가 최근에 시민들이 참여할 공간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주부토크쇼는 언제까지 여성들을 결혼, 가정, 성 그리고 육체적 아름다움에만 가두어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부토크 프로그램에 금지된 주제가 없다면 바로 사회 참여하는 건강한 주부들의 삶을 비쳐보는 것은 어떨까? 아니면 참여할 공간을 소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제작진과 방송사 측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일일 드라마>

70·80년대 답습하고 있는 일일 드라마, 여성 비하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98년3월, 4월

살다보면(KBS1), 보고 또 보고(MBC), 서울탱고(SBS)

방송모니터분과

지난 3월 단행된 방송 3사의 봄철개편은 연례적으로 이루어져왔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 방송사 모두 국가 대위기라는 IMF를 반영한 개편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현실에 지친 시청자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겠다며 '서민적인 가족 드라마'를 표방한 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방송3사 드라마 모두 기획의도를 충분히 살리고 있지 못한데다 잘못 쓰는 방송언어 등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뿐만 아니라 일일드라마가 메인뉴스 전에 편성되기 때문인지 시청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성비하, 물질만능 조장하는 <보고 또 보고>

이 드라마는 두 가족이 겹사돈을 맺어가는 과정을 흥미롭게 그린 드라마다. 그러나 흥미성에 치중한 나머지 등장인물의 배경은 IMF 경제위기와는 별 상관없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어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다. 실제 이 드라마 등장인물의 직업을 보면

교사, 의사, 간호사, 검사 등 대부분 전문직 종사자들로서 경제위기의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직업들이다. 더 나아가 남녀 주인공들이 연애에 '몰두'할 수 있는 토대들을 만들어놓은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등장인물들의 생활환경은 비교적 인텔리적인 중산층으로 모두 상류지향의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다. 남아선호사상과 물질만능을 부추기는 내용도 빼놓을 수 없다. 일례로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열등감을 느낀다거나 투기로 벼락부자가 되는 것을 비하하면서도 경제력으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우호적으로 보는 이중적 의식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사미자가 분한 기풍의 할머니는 손자 기풍에게 6천만원 짜리 오피스텔을 쉽게 사준다거나 외식, 쇼핑을 생활의 활력 내지는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묘사하는 것 그리고 엄마의 새옷에서 메이커부터 확인하는 딸 등 사치를 조장하는 내용이 곳곳에서 보인다.

이 드라마는 직업의 귀천의식도 문제점으로 지적

받았다.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에서 의사에 대한 간호사의 열등감을 전제로 하는가 하면 의사 또한 간호사에게 무조건적으로 명령을 하달하는 식이어서 의사의 간호사에 대한 관계가 상호 보완이 아닌, 신분적 우위를 점하는 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한편 이 드라마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여성관을 그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극중 은주 어머니(김창숙 분)는 결혼을 통한 여성의 신분상승이라는 사고방식이 강한 인물로 나온다. 또 그의 대사를 보면 귀에 거슬릴 정도로 저속할 뿐만 아니라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이 심심찮게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4월 30일 방영분을 보면 "우리 은주가 신박사를 조져 냈지..."라는 대사가 등장한다. 그런가 하면 딸에게 자주 욕을 하기도 하고, 정도를 넘는 표현들을 다반사로 하고 있다. 또 검사신랑에 대해 '땡잡았다'고 표현하는 등 사회의 계급적 통념을 여과없이 대사에 담고 있다. 조연급인 기풍(허준호 분)의 대사에서는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그는 무용단원들을 가리켜 "그냥 데리고 다니는 애들이야..."등으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싫다는 금주에 대해서는 "무조건 따라다니면 넘어오게 되어 있다..."는 식으로 여성 비하적 사고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작위적 연출, 저속한 언어문제 심각한 <서울탱고>

이 드라마는 극중 인물들의 관계가 지나치게 작위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가벼운 에피소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IMF라는 경제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인공들의 의상과 소품은 여전히 화려하다. 또 세입자와 주인간의 관계는 현재 부동산 경기를 무시한 반면 가족간의 갈등 요소나 실직한 사위의 거취 등 심각한 문제거리는 양념 정도로 가미될 뿐이어서 그 접근 방식이 안위적이라

는 비판이다. 이 드라마에서도 여성에 대한 이미지 왜곡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짝짓기에 혈안이 된 모습으로만 고정되게 묘사되는 노처녀 상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으며 노인에 대한 회화화도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다.

한편 이 드라마는 방송 3사 일일 드라마중 언어사용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 말에서 발달되어 있는 호칭어와 지칭어의 잘못된 사용이 눈에 띈다. 우선 동일인에 대해 '삼촌' 또는 '작은 아버지'를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삼촌'은 미혼일 때 지칭하는 것이고 기혼인 경우에는 '작은 아버지'로 해야 하는 게 옳다.

또 사람을 물건에 비유하는 언어가 남발, 인격을 모독하는 대사도 비판받았다. 예를 들면 남편을 일컬어 "지하철 바꾸어 타듯이 바꾸어 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불량품이라도 고쳐 가며 써야지"라고 하거나 여자 주인공을 가리켜 "제품 괜찮다" 또는 "포장마차도 권리금이 수 천만원인데, 딸은 키워서 남 주면 그뿐이지"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밖에도 여성에 의한 여성 비하적 대사가 빈번,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요즘 방영되는 드라마마다 반말이나 비속어의 남발이 문제시 되고 있는데, <서울 탱고>도 예외가 아니다. 부모 자식간에 존칭어가 거의 없고, 특히 모녀간의 대화는 친구 사이를 방불케 한다.



젊은 부부간의 대사도 듣기 민망할 정도이다. “아빠 갔다 올게” “엄마 간다. 미안해 알았지?” “내리라고 하면 내리, 왜 이렇게 말이 많아?”(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대사)와 같은 대사는 현실 반영이라는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살다보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벗지 못한 드라마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방영되는 KBS의 <살다보면>은 자칭 ‘국민드라마’라고 자부하는 K-1 TV 일일드라마의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다.

이 드라마는 부지런하고 알뜰한 부모 세대, 그리고 그 가치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자녀들이 지극히 평범한 생활양식을 보여주고 있어 서민적 생활상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4월 8일 18회분이나 4월 9일 19회분을 보면 젊은 남녀가 레스토랑에서 양식으로 저녁식사를 하는 장면의 경우 적절한 상황설명 없이 드라마 전체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더 나아가 불필요하게 레스토랑에서 데이트하는 장면 등은 드라마에서 지양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한편 몇몇 등장인물들이 우스꽝스럽게 묘사, 억지웃음을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극 중 황길수 부부(임현식, 김형자 분)를 보면 임현식의 경우에는 낙천적이고 쾌활한 성격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캐릭터로 그려지고 있지만 부인인 김형자의 경우 다소 주책맞고 모자란 듯한 인물로 설정, 남편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복만의 셋째딸 숙자 부부(이휘향, 김용건 분)의 경우는 극중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유발하는 갈등주체다. 그러나 갈등을 유발하는 과정에서 황당하고 허풍이 심해 다소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억지스런 인물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능력있고 적극적 직장여성인 말자(김지영 분)는 극중에서 가

부장제 사회에 저항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들은 낳기 싫어요”, “내 이름처럼 우리집은 아들낳기 위해 오랫동안 고생한 집이에요. 난 그게 견딜 수 없어요” “난 싫어 재미없어 애 하나 낳구 세상 다 얻은 것처럼 우리 가족 우리 집만 알면서 사는거 난 안해” (4월 8일 18회분)라고 하는 등 독신을 주장하는 이유가 다소 억지스럽고 비현실적이다. 이는 결국 가부장제 사회에 나름대로 저항하는 독신주의 여성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또 처녀라는 이유로 주위 사람들로 부터 “사람이 때가 되면 짝을 만나야지, 언제까지 끈 떨어진 연처럼 킬링킬링 그렇게 살거야?” “누구 닮아서 그렇게 못됐니? 이기적인 사람이 결혼 안하고 저 하나만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거야. 결혼해서 남을 위해 살아봐야 고생이 뭔지도 알고 사람이 제대로 되지”(4월 8일 18회분) 등의 대사에서도 전통적 이데올로기를 엿볼 수 있다.

한편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이 잦은 것도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부권강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아버지인 복만(주현 분)의 경우, 예컨대 4월 7일 17회분에서 막내딸을 보고 “너 헛소리 말구 얼른 얼른 시집 갈 생각이냐 해. 남동생 봤다구 이빠 했더니 지가 이빠서 데리고 있는 줄 알아. 얼른 빠져줘(문 짱)”라고 하거나 “아들 구경을 하도 오랜만에 하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진작에 아들 좀 서넛 낳아 줬으면 나두 안그러잖아”하는 식의 대사로 자신의 남아선호사상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으며 그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명령조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권위있는 아버지상이 결국 ‘선’으로 묘사되고 있어 전근대적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사위인 인기<홍요섭 분>는 그의 아내 경자(박성미 분)를 가르켜 “어디가 ...잘두 굴러간다. 조그마니까 아주 머리만 박으면 굴르는구나”또는 “꼴 좋다. 젊은 남자가 그렇게 좋냐? 자기가 뭐 입었는

지도 모르고 굴러다니게?” (4월 8일 18회분) “아부 잘한다”(4월 9일 19회분)라고 하는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아내를 무시하는 대사를 일삼고 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인기는 대단히 긍정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어 위와같은 언어사용의 문제점이 은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드라마 새로운 내용 발굴 시급

이상 세 드라마 모두 언어상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지적받았는데 특히 여성을 비하하는 언어사

용이 비판받은 셈이다. 드라마의 주 시청층은 주로 여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저속한 언어사용의 남발은 주 시청자를 무시한 처사라는 결론이다. 또 애초 내비쳤던 IMF시대의 ‘희망과 위로를 주는 드라마’라는 기획의도는 무색할 정도로 남녀간의 연애나 억지스런 내용 등으로 얼룩졌다.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현실성도 있으며 특정 계층을 비하하지 않는 드라마에 대한 모색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방송사는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디어가 여성을 갈취!”
 매일 저녁 8시 30분 방송... 언론... 여성단체 중심으로 미디어 침포에 맞서
 한겨레 21 제242호(99.1.21)

“한장의 사진이 역사를 바꾼다”

■ 다큐멘터리 사진강좌 ■

강사

김영식 (사회사진연구소 사무국장)

이정용 (한겨레신문 사진기자)

조교

임종진 (월간 말 사진기자)

특강

고명진 (상명여대 겸임교수, 한국일보 사진부장)

강좌	강의주제	내용
[입학식]		임재경(본회 「언론아카데미」 교장, 前한겨레신문 부사장)
[1강]	오리엔테이션	고명진(상명여대 겸임교수, 한국일보 사진부장)
[2강]	'사진'에 대한 이해	카메라, 투시법, 이미지와 리얼리티, 시선과 권력
[3강]	초점·노출·심도 이해	카메라 구조와 특성, 초점과 피사계 심도, 노출 조절법
[4강]	조형적 요소와 원리	르네상스적 시선과 바로크적 시선, 광선의 유형과 특성
[5강]	사진적 요소와 원리	시각과 응시, 시점과 프레임(공간·시간), 선택과 배제
[6강]	중간점검	조형적·사진적 요소와 원리 재점검
[7강]	표현기법과 미학적 특성	거리와 위치, 초점과 심도, 앵글과 프레임
[8강]	사진 이미지 읽기 ①	보도사진, 광고사진
[9강]	사진 이미지 읽기 ②	사진으로 들여다 본 북한
[10강]	사진 이미지 읽기 ③	포토스토리, 에세이, 시리즈, 시퀀스, 몽타주, 풀라주
[11강]	【특강】 포토저널리즘	고명진 (상명여대 겸임교수, 한국일보 사진부장)
[12강]	다큐멘터리 사진 ①	시대적 흐름으로 본 다큐멘터리 사진(1910~현대)
[13강]	다큐멘터리 사진 ②	다큐멘터리 사진 접근방법 (해설, 관찰, 성찰, 상호작용)
[14강]	다큐멘터리 사진 ③	사진 결과물에 대한 분석, 종합토론
[15강]	사진평가·강의평가	일정과 방식, 내용에 대한 제안

★ 매주 과제물 제출과 평가, '촬영 실습'이 있습니다.

■ 일정 : 2개월 과정, 매주 수요일(오후 7시~9시), 토요일(오후 2시~4시)

■ 장소 : 민연련 교육관(마포 불교방송국 7층)

■ 인원 : 30명 정원 (선착순 마감)

■ 회비 : 12만원(월간 말 정기구독자 10만원)

■ 입금계좌 : 외환은행 189-13-03924-2 민연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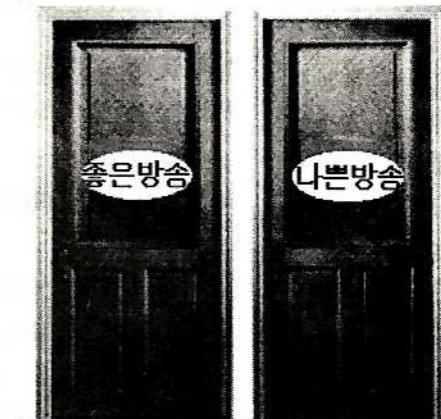
■ 대상 : '사진'에 관심있는 시민·학생 누구나

Ⅲ

이 달의 좋은·나쁜

프로그램 선정

어느 문을 여시겠습니까



민연련 모니터위원회 방송분과는 1998년 9월부터 '이 달의 좋은·나쁜 방송'을 선정, 발표하기로 했다. 방송모니터 활동이 프로그램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좋은 방송을 적극 권장, 시청률이 절대적 기준이 되는 기존 방송계 풍토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이를 기획했다. 공중파 방송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며 매달 넷째 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기준은 민연련 방송분과의 한달 동안의 모니터 결과를 참고로 모니터 요원들이 투표로 결정한다. 좋은·나쁜방송이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칭찬과 단죄의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시청자가 원하는 방송이 무엇인지 환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KBS 2TV <정범구의 세상읽기>

상업성 뒤로 한 채 '메시지 전달'에 주력하는 시사 토크

매주 **일요일 23시15분~00시10분**

KBS 2TV 정범구의 세상읽기

방송모니터분과

시청률이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평가 잣대가 되고 있는 우리의 방송 현실을 아랑곳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다. [정범구의 세상읽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한 때 광고가 전무한 상태여서 방송사에서는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던 게 사실이다. 심지어 폐지 위기까지 갔었다. 그러나 저조한 시청률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 이슈와 의미 있는 메시지 전달로 시사토크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차별화된 프로그램

같은 시간대 타 방송사는 토크·쇼, 영화 등 오락 프로그램이 방송된다. 때문에 [정범구의 세상읽기]가 시청률경쟁에서 뒤지는 것은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보다는 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 위주의 편성에 더 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오락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높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모든 시청자가 오락에만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이 프로그램이 다른 토크쇼와 다른 점은 바로 시청률을 의식하지 않은 게스트 선정이다.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초대손님은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 김종철 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이갑용 민주노총 위원장, 작가 박경리, 시인 박노해 씨 등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방송에서 '금기'처럼 여겨지던 재야인사를 포함해 세속적 의미의 '성공'이나 대중적 '인기'와는 거리가 먼 인사들이다. 이는 방



송 출연자들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일이며 결국 여러 계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이들을 지나치게 영웅시하여 또 다른 의미에서의 '스타'를 만드는 상업화 우려도 제기되었다. 다행히도 이러한 우려는 아직 표면화되지 않고 있다.

평면적 구성은 아쉬워

각 방송사의 토크프로그램은 많으나 시사 토크·프로그램으로서 자리를 굳히기에는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기존의 토크쇼는 대중적 인기를 의식한 출연자 선정, 사회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벼운 신변잡기성 문답, 진행자의 일방적인 주도 등이 한계로 지적됐다. 그러나 [정범구의 세상읽기]는 이런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시도로서 정통 토크프로그램의 가능성이 엿보인다.

다음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지적이다.

첫째, 구성이 다소 평면적이라는 지적이다. 서두에 출연자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있지만 중간중간 '흥미'를 유발할 장치가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 **둘째, 출연자의 인생관을 경청하는 수준을 넘어야 하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대화내용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셋째, 사전에 출연자를 예고하고, 시청자의 질문을 받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또 야외 촬영일 경우 의도적으로 자연스럽게 연출하려는 우(愚)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점이 개선된다면 소수의 지식층을 겨냥한 프로그램이라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중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분과 회원을 소개합니다.

민언련 방송분과는 현재 12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생 반 직장인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 직장인들은 대부분 직장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방송분과는 매월 1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모니터 주제에서부터 교육, 단합대회에 이르기까지 분과운영 제반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분과장은 공석이지만 분과장 못지않게 열심히 뛰고 있는 김성진 총무가 있다. 불과 얼마전 '민언련 비디오 저널리스트'로 데뷔하기도 했다. 꼼꼼함과 성실성하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자료부장, 강정훈 회원은 '멋진' 홈페이지(<http://sh.hanarotel.co.kr/~kjhondal>)로 유명하다. 통신광으로 불리는 강회원은 자료수집의 귀재라 해도 부족함이 없다. 올드멤버로서 노련한 모니터 실력을 보여주는 윤세영 회원은 바쁜 직장생활중에도 성실한 활동으로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 지금은 참석을 잘 하지 못하지만 가끔 전화로 애정을 표해주는 박성원 회원과 오영애 회원 그리고 윤세영 회원 모두 분과가 어려웠던 시절에 든든한 지킴이였다. 역시 바쁜 직장일로 꾸준한 참석은 못하지만 학생 회원들을 압도하는 분석력을 갖고 있는 회원이 있다. 바로 정인식 회원이다. 회계인 장유정 회원은 방송분과 일이라면 이일 저일 가리지 않고 모든 일에 열심인 훌륭한 회원이다. 전소영 회원과 유연재 회원은 언제나 예리한 시각을 과시한다. 강휘석 회원과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김범인 회원은 열성도 한몫한다. 항상 재치를 발휘하여 좌중을 웃기는 이지혜 조직부장은 민언련 총무간사이기도 하다. 신문분과를 통해 배운 모니터 실력을 방송분과에서 발휘하는 열렬 회원이다. 막내 민경훈 회원은 고3 때부터 활동을 시작한 '못말리는' 회원이다. 현재 성균관대 사회과학부 1년 신입생으로서 매우 바빠진 민 회원은 '꿈나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늘 회원들에게 배우는 자세로 임한다는 이유경 간사가 방송분과에 함께하고 있다.

KBS 2TV <시청자 칼럼 우리 사는 세상>

시청자들의 자발적 방송 참여, 권리 찾기 돋보여

월~금 오후 9시45분~9시50분

KBS 2TV 시청자 칼럼 우리 사는 세상
방송모니터분과

최근 시청자가 직접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늘고 있다. 특히 오락프로그램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오락프로그램에서의 시청자 참여는 웃음의 수단과 대상으로만 이용될 뿐 주체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다. 이와 달리 시청자들이 '출연'하는데 그치지 않고 '참여'로서 의미를 지니는 프로그램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바로 [시청자 칼럼 우리 사는 세상]이다. 민연련 방송모니터분과는 이 프로그램을 '이 달의 좋은 방송'으로 선정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는 생활주변에서 겪은 미담은 물론 권리 찾기를 위해 노력한 사례 등을 직접 이야기하게 된다. 특히 일반 뉴스에서 외면 당하는 사회문제를 고발하는 것은 '시민저널리즘'의 '첫 걸음'이라는 평가다.

지난 11월 2일 방영 분에서는 인터넷 동감지기로 영월댐 건설 반대운동을 펴고 있는 한 시민이 댐 건설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또한 노트북 컴퓨터를 생산하는 대기업의 부당한 AS체계를 지적하는

대학생(11/4일 방영), 장애인 외면한 실업대책을 꼬집는 청각장애인(11/17일 방영), 친절한 버스운전기사에 대한 미담을 소개하는 초등학교 사연 등(11/3일 방영) 사소해 보이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다. 특히 퇴직금과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도 5인 이하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할아버지의 '헌법소원'은(11/5일 방영) 고령의 나이에도 권리 찾기에 나선 시민의식이 돋보였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출연하여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 수동적이고 소심한 시민의식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도 이 프로그램의 장점으로 꼽힌다. 시청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준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프로그램 개편 때마다 KBS는 '공영성 강화'를 외쳐왔다. 그러나 항상 구호로만 그쳐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BS <시네마 천국>

영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제시

매주 금요일 오후 9시45분~10시25분

EBS 시네마 천국
방송모니터분과



EBS '시네마천국'은 영화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돋보이는 프로그램이다.

'현대 일본영화의 한 경향', '한국 영화 속의 성담론' 등 주제에 따른 영화 보기와 감독에 대한 탐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영화를 단순한 오락이 아닌 문화로서 접근한다. 따라서 영화 이면에 숨어있는 작가들의 의도를 끌어내고, 영화에 투영된 사회상에 대해 고찰하기도 한다.

영화를 편식하지 않는다는 것도 '시네마천국'의 미덕이다.

할리우드 영화 일색인 다른 영화관련 프로그램과 달리 제3세계 영화, 단편영화 등 '비주류' 영화들을 소개하고 의미를 되짚어본다. 지난 4일에는 다른 방송사들이 '금기'시 하는 쿼어영화제와 인권영화제를 자세하게 소개하기도 했다.

한 달에 한편씩 우리 나라 단편영화를 보여주는 TV시사회도 돋보이는 코너다. 이 코너는 단순히 영화를 보여주는 데 머물지 않고 감독이 직접 출연, 질의 응답을 통해 영화의 의미를 찾아본다. 특

히 얼마 전부터는 시청자들을 초대해 감독과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시청자들의 프로그램 참여라는 면에서 바람직한 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시네마천국'이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다. 우선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다보니 영화를 즐기는데 익숙한 일반 시청자들에게 어렵게 느껴져, 소수 매니아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만 남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성과 대중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잡기가 이 프로그램의 과제로 남는다. 이런 점에서 일반 시청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나도 평론가], [나도 영화감독] 등의 코너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진행자의 매끄럽지 못한 진행도 '시네마천국'의 작은 약점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적에도, '시네마천국'은 할리우드 영화를 영화의 전부로 알고 있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영화보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영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에 충분하다.

'98. 12월의 나쁜 방송

SBS <한밤의 TV연예>

연예인 인격 모욕, 진행자의 잦은 실수, 개선의 기미가 없다

매주 **목요일 오후 11시 5분 ~ 12시**

SBS 한밤의 TV연예

방송모니터분과

연예계 소식은 많은 이들의 관심 대상이다. 이러한 대중들의 관심을 쫓아 방송사들은 각종 연예정보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송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연예인 개인에 대한 가벼운 소식에서부터 대중문화계의 현안까지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으며 시청자들에게 정보 제공의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이미 다른 매체에서 다룬 내용을 재탕, '정보'로서의 가치가 아닌 연예인의 사

생활에 집착하기 일쑤다. 인터넷 방송모니터분과는 이들 연예정보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된 SBS '한밤의 TV연예'를 이달의 나쁜방송으로 선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나치게 선정적인 내용, 진행자의 자질 등에서 끊임없이 지적을 받아왔다. 또 '연예정보'라는 이름으로 연예인의 결혼, 이혼, 출산, 육아 등 사생활에 집착함으로써 공중파의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은 연예인들의 인격 모욕이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보통 연예인들은 대상화, 상품화되기 쉬운 위치에 있고 공인이라는 이유로 인격이 존중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이 프로그램이 모델 이승희와의 인터뷰에서 상대를 고려하지 않는 노골적인 질의로 물의를 빚은 것은 대표적인 예로 기억된다. 이밖에도 이혼을 한 연예인의 전부인을 찾아가 일방적인 내용을 인터뷰, 여과없이 방송하는 등 개인의 인격을 무시한 행태는 계속되고 있다.



또 '수영복이 잘 어울리는 여자 연예인은 누구', '연예인 착용 인기상품의 종류는?' '가장 섹시한 연예인은 누구?' 하는 식의 주제선정은 이 프로그램이 연예인을 인격체가 아닌 단순한 '홍미의 도구' 정도로 여기고 있다고 판단된다. 무리한 '해외스타 모시기'도 지적 대상이다. 해외스타들은 그 나라에 직접 찾아가 인터뷰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비가 들기 마련이다. 많은 경비를 들여가면서까지 해외에 나가 인터뷰 해야할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된 해외스타들이 인터뷰에 임하는 자세가 불성실한 반면 인터뷰하는 리포터들은 매우 저자세인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인터뷰 내용도 근황, 출연영화 혹은 출시음반 홍보, 한국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정도로 뻔한 것들이다.

나머지 시간은 스타들의 출연영화, 뮤직비디오를 화면으로 보여주며 적당히 때운다. 그 많은 경비를 들여가며 해외스타들을 인터뷰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몇 마디 주고받고 나머지는 화면으로 때운다는 것은 굳이 'IMF 시대'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잦은 진행자의 실수는 연말특집에서 반드시 재탕되어 방송된다. 진행자는 자신들의 실수를 즐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의 실수는 애교로 보기 곤란한 수준이다. PC 통신에 올라오는 수많은 시청자의 불만이 이를 잘 말해준다. '정보'라고 할 수 없는 선정적 내용, 사생활 침해와 인격 모욕, 고쳐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진행자의 실수등 이 프로그램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



부록

신문분과의 발자취

<‘언론개혁’의 그 날을 기다리며...>

신문모니터분과

연도	날짜	주요 활동	활동회원
1992년	1월	신문·방송 비평 모임 결성	유종순, 장창주, 김영일, 김종배, 김언경, 이건, 신미희, 서영복, 정희중, 김두환, 이승용, 신용현
	2월20일	14대 총선 선감연 활동	
	5월19일	최초의 신문모니터보고서 발표	
	9월4일	14대 대선 선감연활동	
1993년	5월	모니터교육자료집 발간	최환석, 오혜영, 박철균, 최소영, 김미화, 오진아, 김은미, 김형균
	6월2일	제1기 모니터교실	
	10월19일	제2기 모니터교실	
1994년	6월25일	새내기 교육자료집 발간	김정아, 이유경, 김윤희, 조은숙, 이광석, 이인수, 김윤희, 서창주
1995년	3월	지방선거 선감연 활동	이수용, 김윤정, 김유배, 이지영, 서혜영, 김훈, 백우수, 이상민, 김경희, 하성란, 강희경, 이은미, 김유진
	5월	94년 모니터자료집 발간	
1996년	2월	95년 모니터자료집 발간	정의순, 김민철, 고수진, 이종범, 허연화, 이백용, 김동원, 이민정, 이애림, 김명희, 김민정, 이원경, 정의심, 김민철, 김유진, 김은주
	2월7일	선거보도모니터교실 개강	
	3월7일	15대 총선 선감연 활동	
	9월	96년 상반기 모니터자료집 발간	
	10월	신문분과 회원의 날 행사	
1997년	2월	96년 하반기 모니터자료집 발간	김석근, 임동균, 이영애, 김시연, 김동운, 정봉화, 김명희, 권오중, 송미선, 이영민, 조정아
	3월	정기총회	
	3월29일	김두환, 오혜영 회원 결혼	
	8월	선거보도 교육	
1998년	9월	15대 대선 선감연 활동	류정민, 이지혜, 김영교, 김경윤, 권항원, 정정일, 김정미, 양희선, 이유선, 차운자, 조영순, 공선주, 김수연, 김영교, 하김은정, 이종현, 최경윤
	2월	신문·방송 모니터교실	
	4월	선거보도 모니터교실	
	5월	제2기 지방선거 선감연 활동	
	5월19일	신문분과 6주년 생일잔치	
	7월	조선일보 기획모니터	
12월	신문분과, 민연련 모범회원상수상		
1999년	3월26일	98년 모니터자료집 발간	박경구, 이종호, 여길현

<나도 한 마디>

신문모니터분과

이지혜(1973년생)

“미모의 여간사, 이지혜입니다.”

워낙 내세울 게 미모밖에 없어서, 지나친 자기자랑은 팔불출임을 알면서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네요. 제 자랑 같지만,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미모’ 외에도 타고난 성품과 지도력, 재치, 영특함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제 스스로도 저의 이런 뛰어난데 부담을 느껴 한동안은 두문불출하며 실의에 빠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언련 회원이 되어 제 가치를 재평가 받으며 미모와 타고난 성품과 지도력, 재치, 영특함이 결코 ‘부담’이 아니라 언론민주화와 조선일보 격파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준 민언련, 특히 ‘신문분과’에 감사드립니다.

공선주(1979년생)

공짜가 아닙니다.

선불도 물론 아닙니다.

주머니 사정이 허락하는데로 이용해주시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호

언론학교 2기 졸업. 언론학교 졸업한 뒤로 회원다운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학교를 졸업한 지 한 달쯤 됐고, 노는데 익숙해서 아직 놀고 있다.

학교에선 국문학(국어학)과 사회학(사외학)을 공부했다. 지금은 사진찍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김훈(1971년생)

언론학교 15기. 신문분과 활동 4년차(자기 소개서

를 쓰기에 쑥스러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말>에서 곧 잘릴 듯. 은주누나가 제일 아끼는 후배. 그러나 나는 누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음. 가슴 속에 품고 사는 격언 “산 입에 거미줄 치랴”

김지연(1977년생)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사람복이 많게 생겼다고요.(제 얼굴이 궁금하시다고요?)

그 사람의 말이 맞나 보네요.

주위의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충실한 사람이 되려 합니다.

“사람만이 희망이다” 가슴 한가운데 묻고 살아 갑니다.

하김은정(1978년생)

모니터도 제대로 못하는데 모니터 보고서에 이름까지 실어준다니 송구스럽다.

신문분과원다운 짓을 해야 할텐데. 갈길은 멀기만 하구나.

양희선(1974년생)

뿌연 서울 하늘이 싫지만 그 서울 하늘 아래에서 바빠 살아가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바쁜 일상에서도 여유를 찾는 사람이 더 좋습니다. 여유를 찾을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나이지요.

이유선(1978년생)

얕전하고 조용해 보이는 이면 속에서 가끔 일탈적

행동을 하고마는 고집이 보인다.

가끔 자신만의 세계에 몰입되는 경향이 있지만 유달리 많은 호기심이 외부세계와의 다양한 채널을 유지시키게 하고 있다.

인간의 가장 흥미로운 탐구대상은 바로 인간자신이라고 한다. 그녀의 가장 흥미로운 탐구대상은 바로 자신일 것이다. 지켜보자, 어떤 결론이 나올지..

김수연(1977년생)

언론학교 26기를 들은 계기로 신문분과에 우연히 참여하게 된 중고신인.

보수적이고 구속되는 것을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사람.

항상 변화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여길현

나는 여길현이다. 경구와 동기다. 여기 신문분과는 경구가 다니기 때문에 얼떨결에 같이 다니고 있다. 경구와는 언론학교 27기를 같이 다녔다.

그는 사실 나와 라이벌이다. 나이는 꽤 차이가 나지만 정신연령은 비슷하다. 그래서 남들이 서로 잘 어울린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나는 그런말을 들으면 사실 기분이 그다지 좋지 않다. 내가 이곳 신문분과 모임에 가끔 나와 청강을 하는것도 경구와의 라이벌 싸움에서 결코 뒤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경구는 나의 적수가 되지 않음을 몸으로 보여주고 싶었다.

남들이 보면 나이 먹고 웬 망나니짓거리냐고 비웃겠지만, 사실 그것은 경구가 어떤 인간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경구를 만나면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내가 왜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느끼게 된다. 그래서 나는 마포에 온다. 이젠 더 이상 갈 곳 없는 ‘마포종점’이 아니다. 나는 마포에서 경구를 만나는 한 여기는 “마포정점”이다.

이수용(1973년생)

안녕하세요. 저는 신문분과 이수용입니다. 제가 분과생활을 시작한지가 벌써 3년 6개월을 넘어섰음을 알고 자못 고개가 숙여지네요. 모임을 구성하는 분과원들도 많이 바뀌었고, 세상도 IMF와 정권교체

로 인한 변화가 무쌍하고 우리의 사고와 폭도 유연하게 달라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기도 합니다.

요즘 직장생활에 지이다 보니 참 어렵네요. 제가 생각하는 분과생활은 일주일에 한번 모임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신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개연성 있는 추론을 통한 문제짚기와 대안찾기가 스스로의 창의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자신의 생각들을 매주 각기 다른 사안들에 정리해보고 모임에서 서로의 의견들을 듣고 토론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나의 관점과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마음깊이 인지하고 그러면서 많은 부분들을 배워갈수 있지 않을까요.

분과생활을 시작하다보면 처음엔 매일 보는 신문을 조금씩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음에 재미를 느끼고 시작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때론 지루하고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듯 뭐가 뭘지 더욱 헛갈리는 ‘혼돈’도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보는 신문습관에서 한발짝 떨어지기가 무척 어렵게 느껴지고 바쁜 생활속에서 꾸준히 신문을 꼼꼼히 보는 일도 쉽지 않지요.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볼까요? 언론학교를 아는 사람들도 극히 드물지요. 신문분과를 아는 이들은 더욱 적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 두발로 가슴에 한 가지씩은 마음먹고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어찌 보면 시간이 남아서 오기보다는 시간을 쪼개가며 모임을 끌어나가는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모임에 와서 서로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면 아직 활기차고 열정적인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감이겠지요. 각자가 조금씩 더 노력할 때 비로소 분과의 힘이 생기고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인 수용자 운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모임을 조직화해내고 분과원의 힘을 효과적으로 집중시킬수 있도록 여러분의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시간인 듯 합니다.

힘낼시다. 그리고 생각합시다. 힘있는 사고와 비판은 부단한 노력의 결과니까요.

행복하세요....

정희중(1961년생)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 뛰고 있음.
94년부터 신문분과장을 맡은 이후 지금까지 무려 6년동안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 처지임.
지난 연말 '정권교체'를 시도했다가 여론 형성이 미흡하고, 지지세력이 없어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음. 올해는 기필코 '정권교체'를 이루고 말 것임.
'신문개혁'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항상 가슴에 담고서 '어떻게 하면 개혁 역량을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을 움직일 수 있을때까지 활동하지 않을까?

김영교(1979년생)

도저히 완치가 불가능한 불치의 병(공주병)을 앓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살아가려는 전혀 안 가련한 백설공주입니다.
(불만 있으신 분들은 112에 범죄신고를....)
현재 수업중 하얗게 뒤집어진 눈으로 교수님을 공포속으로 몰아넣다
살인미수죄로 수배중에 있습니다. (현상금도 있는데 얼마지는 모르겠습니다.)
-99년 3월 현재 인디아 여행중

송미선(1974년생)

신문보도 감시하면 '민언련 신문분과', 언론도 배우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배우고, 너무나 멋있는 사람만 있어 항상 즐거운 곳! (신문분과 광고였음)
저는 직장인 송미선. 직장을 하두 많이 옮겨서 밝히기 싫음.
광주에서 2년간 모니터 생활하고 제작년 11월부터 민언련에 살머시 들어옴.

이유경(1972년생)

언론학교 8기 졸업. 93년 12월 2X일부터 모니터 시작. 겨우 28세. 쥐띠 소녀.
우성: 밥먹기, 인간성, 욕, EDPS, 고양이, 미모
열성: 무식(알고 싶은것만 알고 아는 것 없음), 건망증, 강아지, 미모
관심분야: 별명이 똥파리(모든 일에 다 참견하는

스타일)이지만, 우선순위로 따져보자면 여성, 영화, '말', 코미디 등
자신이 좋을 때 : 거의 늘
자신이 혐오스러울 때: 필름 끊겼을 때

이영민(1971년생)

애인없고, 월급날 없다고 늘 소개하는 29세 고독한 사나이. 연락맨으로도 통함.
신문분과에 몇 안되는 통신수단 과다수요자. 적극적 활동력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음.
지금은 모처에서 막노동으로 세상을 보고 있음.
중앙일보에 이를 갈며, 신문분과의 힘이 빨리 강화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음.

임동균(1971년생)

워낙 뛰어난 인물이라 어떻게 각자의 머리속에 상이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적 아주 위급한 경우를 당하거나 부딪혔을 때 누군가를 부르고 싶거나, 이 사람만 있으면 해결될거라고 생각될 때 저를 떠올리면 모든 것은 만사 OK.
아니 좀더 쉽게 야그해서 지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언덕위에 올라 조용히 가슴속에 떠올리며 외치면 됩니다. 절대 독수리 5형제를 부르면 안되겠지요. 쟁가 역시도. 마징가 Z도. 코난도.....
저 한마디...임군아!
제가 힘들 때(?) 신문분과는 제게 잔잔한 느낌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고, 변함없는 편안함으로, 넉넉함으로...
어떤 모임이든지 사람이 소중하고 중심입니다.
정이 없으면 그 모임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신문분과라고 예외일수는 없겠지요. 서로들 더욱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듯 합니다.
민언련 신문분과는 초코파이입니다.
아니 情입니다.

김시연(1974년생)

별을 보며 꿈꾸는 범띠총각 소년
어려운 '환란'을 뚫고 가로수를 누비는 기자가 됨.
신입회원 시절부터 총기가 번득 거렸다는 평가.

이상 이유경이 본 김시연임.

김은주(1967년생)

33세 주부 교직진출을 꿈꾸다 결혼 이후 관심사 변경.
우연히 찾게된 민언련에 발을 잡혀 총무 역임중.
아들이 성장했을때는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간판 바꾸기를 꿈꾸며 사는 엄마.
많은 엄마들의 참여를 기대하며.

이인수(1969년생)

신문모니터 활동을 시작한지는 꽤 되었지만 열의가 부족해서인지 많은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차지할 자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래도 직장이 있고 (다행스러운 일). 결혼도 했고, 언론학교 7기 동우회와 총동우회에 이름을 걸고 활동하고 있다. 민언련때부터 지금까지 얼굴을 자주 비추다보니 동우회 일을 맡게 되었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을 느끼고 있다.
어디 도와줄 이 없어요~~~~~"

차운자(1977년생)

신문분과 회원이 된지도 벌써 반년이 넘었네요. 즐겁기만한 화요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분과 사람들과 함께 하며 남는 이것은 바로 "사람만이 희망이다."
생기발랄하고 속이 콕 찬 저는 차운자입니다.^^;;

박경구

펜으로 한 개인을 잉크로, 풀어내리는 것은 어찌구 니없는 행위이기도 합니다만, 타인들에게 그를 부분적이거나 알릴수 있는 유용한 경로이기도 합니다.
각설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을 저의 부분 부분을 조금만 활자로 옮겨보기로 합니다.
男, 21, 박씨가문, 중손, 학생, 한국인, 황인중, 인간, 우주의 먼지.
My name is Park Kyung-Ku.
제 이름은 박경구입니다.

이름이야말로 물론 사회적인 표시물이지요.
흔히 사람을 설명하는 수단으로 거쳐온 학교와 다니는 학교를 기재하는 법이라지요?
원춘중, 한성과학고를 거쳐서 현재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2학년에 재학중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사실 학력이란 별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학교란 몸에 걸친 옷에 다름이 없으니까요.
저를 규정하는 포장지지요.
저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의지', 이 거창한 언어가 제 삶의 원동력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뜻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기둥위에 '이상'이라는 지붕을 얹어 만들어진 궁전에서 살아보겠다는 욕심이 뱃속에 가득한지도 모릅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일까요? '의지'가 좋은 쪽이나, 나쁜 쪽이나를 구분하는 것일까요? 제가 살고 싶은 그 궁전이 타인의 눈물로 청소된 피의 궁전인가? 아니면 사슴이 뛰어놀고 꽃이 피는 정원에서 만인의 웃음소리가 메아리로 어우러지는 빛의 궁전인가? ---> 이것일까요?
거창한 표현으로 무게를 잡아보았습니다. -체중계가 깨진다. ☺- 제 소개는 이만 끝!
못된 사람은 절대로 행간의 의미를 읽어낼수 없습니다. Ha Ha Ha~~~~

류정민(1973년생)

앞만 보고 달리지는 않습니다.
뒤돌아서 자친 이들의 작은 두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싶은 人.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
거대자본, 보수언론의 권력앞에서도 당당한 발걸음으로 나아갑니다.
희망세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땀방울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며..
-동악-

정정일(1974년생)

사람에 대한 열정이 건강한 사람.
흔들림없는 몸짓 속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는 사람.
그녀의 강단진 눈빛에서는 참세상에 대한 넉넉한

희망이 있습니다.

이정환

신비스러운 사람
알 수 없는 비디오맨
80년대 학사주점
생각나는게 없는 사람
25기를 빛낸 위인
너무 너무나 썰렁한 남자
바로 이정환입니다요~~~

<신문분과 자료팀 편집후기>

제발 밤 새지 맙시다!

신문분과 자료팀장 김시연

우선 마지막 자료집을 만들고 난 뒤 생긴 2년간의 공백부터 메워야 했다. 흩어진 보고서들을 한데 모았다. 유경이 누나와 정희종 반장님의 도움으로 기본 자료는 모두 확보할 수 있었다.

2월초 지연이, 유선이, 선주 등 신문분과의 세 정예멤버와 함께 2월초 첫 모임을 가졌다. 하지만 자료집 만든 경험이 없던 우리로선 맨땅에 헤딩하기일 수밖에. 여기에 '프로페셔널' 영민이형과 미션이가 참여하면서 준비작업은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설날을 건너뛰고 2월26일 첫 편집회의를 가졌다. 구체적인 안들이 튀어나왔다.

"읽히는 자료집을 만들자." 지금까지 자료집들이 단순한 보고서 모음에 지나지 않았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내린 우리들은 누구에게나 읽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자료집을 만들자는 의지를 다졌다. 그런 중에 데드라인이 3월26일 총회전까지로 정해졌다. 그러나 한 달이란 기간은 너무 촉박했다. 결국 97년분은 일단 보류하고 98년판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 다음주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 우리집과 지연이집, 민연련 사무실 등을 돌며 모임을 가졌다. 마감이 임박하고서는 영민이형이 일했던 언개련 사무실을 빌려쓰기로 했다.

19일 프레젠테이션. 선주와 영민이형. 그리고 방송분과 유정씨와 소영씨도 참여했다. 편집전문가인 영민이형의 주도로 구체적인 편집방향이 짜여졌다. 거기에 맞춰 나머지 멤버들을 보고서를 나눠 틈틈이 교정을 보면서 기사자료를 확보했다. 중노동이 따로 없었다. 언개련에서 하룻밤, 민연련에서 이틀밤을 지냈다. 이 후기를 쓰고 있는 지금도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 하지만 우린 결국 해냈다. 영민이형의 왕고집과 다른 멤버들의 성실한 참여로... 우린 또 하나의 멋진 합작품을 만들어낸 것이다. 모두들 수고 많았어요~~

방송분과원 한마디

<나를 잔인하게 만드는 방송모니터>

방송모니터분과 총무부장 김성진 회원

방송이 낭비되고 있다. 물론 방송매체는 철저히 정치적이고 오락적인 도구로써 태생을 했고 발전을 해왔다. 그래서일까? 언론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더라도 유난히 방송에 대해서 관대하다. 어차피 방송은 '딴따라'라는 것일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젠 해도 너무 한다. 부존자원 하나도 없는 우리 나라에서 전파자원이란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방송은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타고 낭비되고 있다. 이것이 나의 문제의식의 출발점이다.

내가 방송모니터를 시작한 것은 1998년 8월이다. 언론학교를 마치고 '나도 뭐하나 해야겠군'하고 둘러보다가 방송모니터분과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누구나 그렇듯이 처음엔 많이 헤맸다.(지금도 종종 헤매긴 마찬가지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몰라서 어리둥절해 하다가 98년 한해가 다가고 말았다. 그간의 짧은 모니터활동을 평가해보며 몇 가지 애로사항을 토로해 볼까한다.

배달 안되는 비디오테잎

전파매체의 특성으로 이해를 해야 할까? 방송이 가진 일회성이라는 게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다. 한번 방영된 프로그램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방송이 없다. 방송을 모니터하기 위해선 제날짜, 제 시간에 정확히 브라운관 앞에 앉아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에게 비디오 녹화기라는

편리한 기계장치가 있다. 그러나 매주마다 번번이 다른 프로그램을 녹화해서 시청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또 하나 방법은 있다. 방송위원회에서 녹화된 테이프를 가져오는 것이다.(방송위원회에서는 시청자단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녹화테이프를 공급해 주고있다) 그러나 이 방법도 문제는 있다. 동네 비디오 가게처럼 배달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매주 방송위원회에 가서 테이프를 받아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 외에 더욱 중요한 문제는 피드백이 없다는 것과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피드백이 아예 전무한 것은 아니다. 가끔 신문이나 잡지상에 모니터보고서 내용이 소개되곤 하지만 방송사나 프로그램 제작진의 직접적인 반응이나 태도변화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러한 면에선 방송사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적당한 피드백과 재교육은 모니터 활동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더욱 신중하고 정확하며 과학적인 근거와 논리를 가진 모니터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이번엔 더욱 근본적인 방송을 바라보는 시각과 철학에 관한 문제다.

앞서 지적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송은 어차피 딴따라'라는 생각을 일정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를 포함한 모니터 요원들도 그렇다는 얘기다. 우선은 모니터를 하는 사람들부터라도 그러한 시각을 교정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러한 시각으로는 방송모니터에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방송을 개혁시킬 수도 없다고 감히 단언한

다. 방송은 국가적 자원이다. 그러나 지금 국가적 자원이 주인인 시청자를 위하여 쓰여지지 않고 엉뚱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다. 사랑은 정보를 타고 연인에게 다가가지만 방송은 전파를 타고 권력과 자본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내가 방송의 주인 입에도 불구하고 방송은 엉뚱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의 확산이야말로 방송개혁의 근간이 된다고 믿는다.

나를 잔인하게 만드는 방송모니터

얼마전 모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방송사에서 교양

프로그램이라고 분류를 해놨지만 누가 보더라도 삼류슈퍼울트라저질프로그램) 담당PD에게서 전화가 온 적이 있었다. 물론 전화는 모니터 담당이 유경 간사가 받았다. 담당PD왈, "아니... 왜 제 프로그램이 이달의 나쁜방송으로 선정이 된거죠? 저... 지금... 심장이 떨려서... 말도 잘 안나오고 있어요..." 뭐 대충 이런 내용의 통화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방송모니터를 하는 입장에서 전화를 한 담당PD의 심장 떨리는 소리를 들으며 뿌듯한 자부심과 희열을 느꼈다면, 더 나아가 희망을 잃었다면 내가 너무 잔인한 것일까?

방송분과 자료집 편집후기

<방송분과 자료집 편집후기>



장유정 회원

한 해를 정리하는 것은 새로운 발전 모색의 시작이라고 본다. 이번 자료집을 만들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가 모니터를 통해 조금이나마 한국 언론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반성할 점들도 많이 있다. 우리가 모니터 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비해 조금 덜 성실했던 것 같다. 하지만 바쁜 상황에서도 일주일에 한번씩 모여 자신의 생각들을 전달하려는 분과원들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의 우리 언론에 밝은 빛이 비취기를 느낄 수 있다. 방송분과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TV 많이, 잘 보고 모니터 열심히 합시다.

전소영 회원

작년에 언론학교를 마치고 들어간 방송분과. 생각과는 달리 그리 충실하지 못했던 생활이었다. 그러나 한 주, 한 주 모여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로 나누고, 웃고, 고민한 성과물인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한 일(보고서)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곤 했다. 능력이라기 보다는 시간상 참여하게된 이번 작업에서 우리가 1년 동안 이 만큼의 일을 했음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다 보니 내심 뿌듯함이 먼저 들었다. 또한 딱히 편집에 능력이 없기에 기타 잡일을 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편집을 해보리라는 욕심을 내 보기도 한다. 자기 자식이 어디가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으면 부모님들은 속 상해 할 것이다. 그렇듯 우리의 많은 시간을 먹고 나온 이 책자가 사람들 손에서 표지와 목차만 인식된 뒤 덮여진다면..... 하지만 우리의 맘이 남긴 흔적은 그 어느곳에서든 기억될 것이라는 믿음을 나는 믿는다.

"기자다운 기자를 원하십니까?"

■ 오연호의 기자만들기■

강좌	강의주제 및 내용
1강	<기자론> "왜 당신은 기자가 되려 하는가" 커뮤니케이션의 역사, 기자의 역사, 우리시대의 기자론
2강	<기사론-기획론> "무엇이 기사거리가 되는가?" 소설과 기사, 뉴스란? 변화하는 독자와 기사
3강	<기사론-문장론> "문장에도 서비스 정신이 있다" 스트레이트 기사쓰기, 첫문장쓰기, 좋은 문장의 조건
4강	<현장취재-일반론> "독자의 눈으로 현장에 서라" 사전취재법, 범죄·시위·재난 현장에서의 취재법
5강	<현장취재-형상화론> "읽히는 르포는 어떻게 탄생하나" 형상화의 4가지 범주와 8가지 방법
6강	<현장취재-메시지론> "사건의 현상과 본질이란 무엇인가" 르포쓰기 현장실습과 평가
7강	<인터뷰-일반론> "공동인터뷰에서도 특종이 나온다" 좋은 인터뷰를 위한 14가지 조건
8강	<인터뷰-특수상황> "포기해야 하는 인터뷰는 없다" 콜롬보식 인터뷰, 탐사 인터뷰
9강	<검찰·법원·경찰 취재론> 이수형(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판문점 총격 요청 사건 특종은 어떻게 생산되었나
10강	<심층탐사취재>, <인물연구> 탐사보도, 기획기사, 특집기사, 프로필 기사, 심층인물연구
11강	<매체사진론> "한장의 사진이 역사를 바꾼다" 임종진(월간 말 사진기자) 사진의 사회적 역할, 매체사진 이해하기, 뉴스인물 관리법
12강	<마감지킴이> "마감 스트레스는 불치병인가" 노트북 시대 경제적인 경제적인 기사작성법
13강	<취재원 관리> "모든 취재원은 반드시 다시 만난다"
14강	<기자윤리> "한국자본주의 최후의 시궁창에서 벗어나라" 표절과 촌지, 한국의 언론문화, 기자정신
15강	<올바른 사회진출> "당신의 꿈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사회진출의 자세와 방법, 매체창간론 ★ 매주마다 해당 기사작성 실습을 합니다.

- 기간 : 2개월 과정, 매주 금요일 (오후 7시~10시)
- 장소 : 민인련 교육관 (마포 불교방송국 7층)
- 대상 : 제한없음 (단, 대학연령일꾼 및 언론진출자 기준)
- 인원 : 30명 정원 ● 회비 : 150,000원 (월간 말 정기구독자 120,000원)

98 모니터 보고서 자료집
- 우리 언론의 일그러진 초상 -

1999년 3월 26일 초판 1쇄 펴냄
편집인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모니터분과
펴낸이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화 / 714-4562

팩스 / 714-1255

홈페이지 주소 / <http://www.ccdm.or.kr>

천리안 : CDPM / 하이텔 : 방송비평 / 나우누리 : 신문비평